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대에 피조물의 영광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만유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날을 여서 속히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5호 2012년 10월 1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따로 모일수록 더 약해진다”

### 리더십저널, 싱글사역의 시행착오 보완책 발표

혹 외발수레를 본 적이 있는가? 외발수레는 바뀌기 하나뿐이라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사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좁은 길을 가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두발수레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홀로 사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의 삶에서 외발수레를 떠올리는 것은 그럴싸한 연상 작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더 편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에는 사별, 이혼, 독신 등의 이유로 홀로 된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 싱글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다. 그만큼 싱글로 사는 이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사람

들의 관심과 고려 속에서 싱글사역은 개화돼야 한다. 미국교회에서 소위 “싱글사역”(Single ministry)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닌 ‘함께’이기에 자신의 회복을 넘어 다른 이들을 돕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을 통해 또 서로를 섬김으로써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만이 우선시 되는 현실 속에서 마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리더십저널(Leadership Journal)은 싱글 사역의 변화된 패러다임 즉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들이나 기혼자들과 서로 어울려,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어내는 현실을 소개해준다(What Happened to Singles Ministry?: Today the best thing for singles is not a singles-only ministry).

싱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는 결혼한 가정 위주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 소위 혼기가 지난 미혼 남녀들은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영적, 정서적으로 고립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 후반부터 (존 트라블타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안) 미국 교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혼율은 증가하고 경력을 중시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정을 꾸리기보다 직장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마다하고 있다. 그러면 늘어나는 싱글들을 교회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싱글들에게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싱글의 시대가 온 것이다!

반면 교회에는 미혼 성도 수가 줄어들었으니 이 새로운 시대정신은 교회지도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새로운 전문 사역이 탄생했다. 싱글이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경쟁이 시작됐다. 1980년대 후반까지 대다수 미국교회에서 싱글사역은 주요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사람들은 ‘싱글’이란 말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 싱글이 된다는 것은, 20대 때는 받아들일 만한 표현이지만 종종 어떤 ‘적정’ 연령대를 지났다는 오명처럼 여



싱글사역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시 되고 있다.

겨진다. 그 나이는 서른 언저리다. 지난 25년간 교회가 싱글들에 다가가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싱글을 직접 겨냥한 열정적인 사역은 더 이상 최전방에 있지 않다. 오히려 싱글사역은 많은 교회들에 집이 되는 것 같다. 시작할 때는 눈부신 성공을 구가하던 사역이었으나 이제는 무너져 옛

영화 즉 서부 영화처럼 퇴색하고 있다. 싱글사역은 초기 개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험난한 사역으로 드러났다. 아주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으나 지속가능한 결과는 초라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싱글사역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3면으로 계속)



## 미국대선 3주 앞...판세 요동 첫 TV토론 롬니 승리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열렸던 첫 번째 TV토론이 롬니의 승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자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경제 분야의 실정 문제로 몰아붙였다고 평가했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밋 롬니가 오바마 대통령을 몰아붙이며 압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세역전’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9월 중순에만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 10%포인트까지 뒤처진 격차를 감안하면 롬니에게는 대반전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토론회 직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방송 조사(2일)에서 롬니 후보가 47%의 지지율로 오바마 대통령(49%)을 바짝 따라붙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NYT는 이번 첫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문제에 토론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특히 롬니 후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인내해줄 것을 간청했고 정책 변화가 있다면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회복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두 후보는 세계문제와 재정적자, 정부의 역할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으며 서로 상대방 후보가 책임을 회피하고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NYT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

회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대학교수 간에 이루어진 세미나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서 두 후보는 모두 자신의 정책이 미국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의 토론은 종종 근거 없는 논쟁으로 빠지거나 유권자들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흘러가곤 했다고 전했다.

롬니 후보의 전략이 자신의 구상이 대통령의 것보다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는 성공했다고 NYT는 평가했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후보가 특정한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상대 후보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반면 오바마는 연단이나 매도 쪽으로 시선을 자주 떨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변수는 경합주(스윙스테이트)의 동향이다. 9월 27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ABC의 9개 경합주 대상 조사에서 오바마는 롬니에게 52% 대 41%로 우세를 보였다. 또 1일 뉴햄프셔 WMUR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가 롬니에게 52% 대 37%로 앞섰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전체 선거인단(538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271명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첫 토론회에서의 선전이 경합주의 표심을 롬니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뉴스전문 케이블 TV CNN이 토론회 직후 시행한 임시 여론조사(snap poll)에서 ‘토론회를 보고 누구에게 더 투표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35%는 롬니를, 18%는 오바마를 꼽았다. 하지만 47%는 ‘표심이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것을 보면 기대만큼 토론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경제’로 보여진다. 남은 기간 롬니의 장이나, 오바마의 방패냐의 진검승부가 불꽃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2면

“탈북자 돕는 것은 전적으로 크리스천의 임무”



3면

이성은 자매 인력사 문제 일단락  
6일 노스쇼어 병원서 이송 허락



7면

사모칼럼  
황순원 사모(CMP사모사역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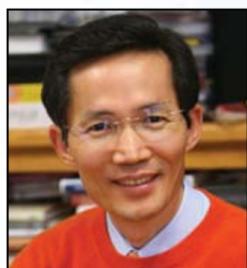


13면

이슬람 세계 뉴스

# 목회자 설교 세미나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을 위한 설교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하고 영성깊은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물별 강해설교의 준비와 전달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한규삼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에베소서 강해설교 연습

일시 10월 30일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Jenny), email: jennylee@apu.edu
- 10월 23일까지 http://koreanpastors.eventbrite.com 로 등록해주세요.



AZUSA PACIFIC  
UNIVERSITY



# 시론

## 직업 윤리의식



원종훈 목사 (사카고 그레이스교회)

인간에게는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기본이 있다. 윤리, 도덕, 혹은 상식이라 하든, 그것은 종교,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 인류가 지키며 보존해야 할 보편적인 도리이다.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존 도덕가치와 새로운 도덕가치의 갈등이 있었지만 발전적 합의의 형태로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와 현대후기 사회에서는 시대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감 때문인지, 여러 갈등이 상존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직업윤리의 필요성까지 느끼게 되었다.

동종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동료라 하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지켜줘야 할 행동의 규범, 도덕적 기준이 있다. 그 바탕 원리는 직업마다 동일하지만, 직업에 따라 각 영역에만 통하는 구체적 규정들이 생겼다. 특별히 의료, 정치, 언론, 기업처럼, 인간의 생명을 다루거나 삶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폭넓은 사회적 신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미국은 물론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한국도 이제 전문가의 직업윤리는 분야마다 체계화되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따라야 할 사람들의 성숙한 윤리의식수준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목사를 포함한 이른바 성직자는 어떤가? 개인 관점에 따라 직업으로 분류하든 안 하든, 성직자 역시 교회 안 밖에서 고도의 신망을 요구하는 전문직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직종에 비해 도덕보다 우월한 신앙이 구비된 자리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총체적 점인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독특한 신앙개념이다. 만일 성경적 신앙에 대한 개인적 편견이나 시대적 오해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정의되든,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수준을 신앙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오히려 보편적인 도덕 수준보다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앙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논하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자성하지는 것이다. 강단에서 다른 목회자를 판단 정죄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단이거나 객관적으로 지적 받아 마땅한 경우에도 강단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설교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동료를 판단 정죄하거나 설교의 내용을 강조하다보니 다른 목회자의 수치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고, 혹은 자기주장의 긍정성 때문에 다른 목회자 메시지의 부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어느 교회가 임대하기로 약속된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웃돈을 주고 임대계약을 가로채거나, 다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을 의도적으로 찾아 심방하거나, 혹은 이웃 교회의 힘든 소식을 듣고 기도보다 소문배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등은 상식 수준의 직업윤리에서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신학교에서 '목회(자)윤리학'을 배운다. 소명(의식, 개인생활, 가치기준, 궁극적 목표 등) 주로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많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우리는 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교회가 같은 길 간다는 전제가 설정되어 있다. 교단, 지역, 연령 등을 초월하여 '동료'와 '동료교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룬다. 우리 수준은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다. 세인들에게 직업윤리조차 모르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목회자 직업윤리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이다. 윤리도덕보다 고귀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우리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뿐이다. 어디 목회자뿐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은 모두 넓은 의미의 성직자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통하는 전문인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상식 이상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직업윤리가 있다!

# “탈북자 돕는 것은 전적으로 크리스천의 임무”

### CT,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M. 킷패트릭이 본 탈북자 문제와 교회역할 소개

북한은 3대에 걸쳐 권력이 김씨 일가에 세습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연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실책으로 인해 굶주림과 기아는 계속되고 이로 인해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국경수비로 인해 중국으로 엑소더스하는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체포되면 가혹한 보복성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으로 향하는 자유에 대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고 있다.

일간지로서 보수성명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시아 문제를 10년 이상 담당해오다가 최근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멜라니 킷패트릭(Melanie Kirkpatrick)은 최근 그녀의 책(Escape from the North Korea, the Untold Story of Asia's Underground Railroad)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감내해야 되는 도전들과 탈북자들을 돕는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하는 위험들을 말해준다(Fight from North Korea: Asia's underground railroad has deeply Christian origins, says journalist Melanie Kirkpatrick).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을 돕는 크리스천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신앙인이 행동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고 인도주의 단체에 속하는 민간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속속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시켜 자신들의 손으로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군사력 강화에만 전력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핵무기 회담에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

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주원인은 바로 이들을 돕는 크리스천들의 헌신과 사역 때문이다. 중국으로 일단 들어가 자유를 얻고 제 3국으로 나가 최종적으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촌 교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북자들

과 박해를 계속해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지구촌 교회들에 알려서 북한 정권이 주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진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북한 정권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

##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 당연” 미주한인 지원효과 커 북한과 핵무기회담에는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책 꼭 포함

탈북자들을 돕는 미국인 목회자는 “만일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물에서 꺼내 생명을 살리지 않겠는가?”고,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서울에 살면서 북한이나 중국 정부가 모르게 탈북자들을 돕는 팀 피터스(T. Peters)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에서 쏟아지는 선교사 후보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세계 선교 즉 인도 아프리카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역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북한은 그 중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만약 핵무기 양산을 포기한다면, 굶주림 때문에 두만강을 넘는 북한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북한으로 유입되는 지구촌 인도주의 단체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도움은 충분히 식량을 구입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

되야 한다. 결국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4개국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유입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중국 정부도 실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공할 수만 있다면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긍정적으로 접근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북한 최고 권력을 계승받

은 김정연에게 탈북자 문제는 일종의 정치 실험과도 같다. 북한 내부 사정이 중국을 통해 다른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정연은 정권은 김정일 생존 시보다 더욱 엄격하게 국경수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중국 탈출을 막고 있고, 현장에서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본인이나 그 가족들까지 주거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지역으로 재배치해 입을 막아버리는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내부정보 누수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연은 정권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탈북자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

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들을 지하를 통해 북부로 탈출시켜 자유를 얻게 한 전통에는 당시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만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나 놀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미국 교회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에게 가장 큰 격려이자 도움이 될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표) /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8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세계 인재 발굴, 양성과 세계교육선교를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세계 교육선교를 위한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 7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Mission** 인적자원개발, 교육컨텐츠개발, 교육정책연구개발, 교육봉사, 지식기부를 통해 지구촌 인재를 발굴하여 지성, 인성, 영성, 리더십을 갖춘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여 세계선교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 교육선교를 하거나 계획하는 교회, 교육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전·현직 교사, 전문인, 전문기술자, 대학생 등 단·장기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기 원하는 분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신청기간** 2012년 10월 30일 까지

**신청접수처** jp@midwest.edu

**일시** 2012년 12월 3일-7일

2012년 12월 3-5일 까지 컨퍼런스  
+ 선택(6-7일) 양일간 미국 공립, 사립학교 교육현장 답사)

**장소**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공항 Lambert St. Louis International Airport)

**예정강사**

  
**Bill Federer**  
(국제교육협력기구(IEC) 총장)

  
**Rep. Jerry Nolte**  
(미중리우 의회 국제교육와 Job Creation 위원장 위원의원)

  
**Rep. Lindell F. Shumake**  
(미중리우 하원의원)

  
**Dr. James Song**  
(Midwest University 총장)

  
**이승중 목사**  
(중공국제대 이사장)

  
**강성일 박사**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정금태 박사**  
(퍼리콰이 기독교 예술학교 이사장)

  
**정승룡 목사**  
(농사당 교회)

  
**Mr. Robb Lynch**  
(IEC Teacher Recruitment and Training Director)

  
**이희철 박사**  
(IEC-School Management Program Training Director)

  
**지영민 대표**  
(패쉬 GGU Director)

▶ 컨퍼런스 참가자혜택 ◀

1. IEC/ WCSN Membership 부여
2. Member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미국인 교사 파견
3.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고가의 학생관리 프로그램 IEC-AMP 지원

4.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국제학교, 대학 프로그램)
5. 학교의 여름방학 등 특별 프로그램에 교육협력봉사단(교사) 파견 및 교사, 학생 교환 프로그램 기회 우선적 지원

**주관**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IEC) 국제교육협력기구, World Christian School Network (WCSN) 세계 크리스찬 스쿨 네트워크, Federation of International Schools (FIS) (K-12)

**후원**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CTS 기독교 TV, 미주크리스찬 신문

#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전환은 안정감 줘

## 리더십저널, 싱글사역의 시행착오 보완책 발표

(1면에서 계속)

싱글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초창기의 싱글사역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공통된 주제를 제시한다. 사역의 의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글만을 따로 모아놓은 환경에서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돌볼 수 없으리라고 본 핵심 개념이 문제였다. 이 같은 개념에서 나온 사역 모델은 실제로 싱글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할 권리를 박탈해버렸고, 구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임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어 고립시켜버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실 싱글들은 싱글 모임에 오래 몸담으려 하지 않는다. 목신의 은사를 받은 예외적인 사람들을 빼고, 싱글 모임 참석자 중 거기에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그들은 단기간의 모임에 감사하고 그런 모임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장기간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문제 중심의 사역 모델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무도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임을 만들게 된다. 목회자들은 잘못된 필요 목록은 규정했거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서는 이탈해버렸다. 핵심 제자도(믿음, 소망, 사랑, 봉사)와 총체적 교

시기를 지나 회복기에 접어든 이들을 위한 안전한 항구 역할을 교회 하려면, 정서적 균형을 유지 하려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개인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건강한 모임은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역기능 모임은 더 큰 역기능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최근 입은

## 과도한 프로그램 막고 아기보기 필수 연령대 맞추고 팀은 크고 다양하게

그들은 항상 가능한 한 빨리 모임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구조적 결함이다.

많은 싱글들이 모임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 모임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모임이 그들의 필요, 곧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난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데 성공하면 그들은 싱글 공동체에서 떠난다. 어떤 사역이든 성공하려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싱글사역이 주로 싱글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모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싱글의 필요를 채워줄 목적으로 싱글만의 모임을 꾸릴 경우, 그 모임은 대개 회복 모임이 되고 만다.

싱글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사역 리더가 싱글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작성해 내놓는다. 이 필요들에 관한 대화가 오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필요에 집중된다. (외로움, 재정 문제, 데이트, 온전한 인격 등은 싱글사역에서 원 없이 다뤄진 주제들이다.) 이

회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 말이다.

싱글만으로 구성된 사역은 정서적 어려움에 훨씬 더 취약하다. 싱글사역이 정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문제거리였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대화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꺼리는 모임이 될 수 있다. 목회자의 주요 업무는 불을 끄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회 내의 싱글들은 대체로 정서적으로 굶주린 상태로, 싱글 그룹 전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부당한 오해를 받았다.

싱글사역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동요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미국의 이혼율에 기인한다.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감성지수가 얼마나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 양육권 다툼과 이혼법정 같은 일은 사람을 한동안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정서적 외상을 입은 사람은 정상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활동한다. 이들은 제한된 사회적 기능과 좁은 사회적 관계를 가진 극히 소수의 싱글들과 짝을 이루 종종 '끼고 싶지 않은' 모임을 만들어버린다. 어려운

정서적 상처에서 회복 중인 사람이 1/3이상을 차지하는 모임에 균형 잡힌 건강한 싱글이 등장할 경우, 그는 모임을 떠나기 쉽다.

정서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로 모임이 넘쳐나면, 그들은 노리는 못된 이들의 주요 목표가 된다. 늑대들은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 싱글들을 모아놓은 데 따르기 마련인 '짜짓기' 분위기가 모임에 덧입혀진다.

어떤 교회 리더들은 이 위태로운 정서적 분위기에 직면하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처한다.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감시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구성원 모두가 알도록 모임의 '규칙'을 출력해 나눠주고, 모임 내에서 데이트를 허락하고 금하는 약속을 정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 많은 싱글들이 어린아이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하는 이유다. 똑같은 일을 기혼자들에게 적용해 친구의 배우자에게 말거는 것을 금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볼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교회의 리더십은 싱글들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역, 그들을 똑같은 교인으로 존중하는 사역, 한때 배우자를 찾다가 졸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 실패가 뻔히 보이는 명예스럽지 못한 모임으로 그들을 강등시키지 않고 신자들의 몸이 교회 안으로 끌어안는 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싱글들을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전체 교회의 삶 속으로 들어와 섞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1. 크고 다양한 팀을 만들라. 존 워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할 일을 주라."
2. 아이 돌봄은 필수다. 모임에 참석하기 원하는 기혼 부부나 싱글 부모들을 위해 무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다면 모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이 돌봄은 예산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다

3. 기혼자 커플은 안정감과 안전감을 가져온다. 기혼자들은 싱글들보다 구성된 여러 모임에서 발견되는 짜짓기 분위기를 없애는데 일조함으로써 모임에 안전감을 제공한다. 싱글들을 노리는 못된 이들을 몰아내는 데는 헌신된 배우자들 만한 대안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혼자들의 참여를 통해 싱글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을 갖게 될 점이다. 최근 어느 교회에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수십 명의 커플들이 있다.

4. 과도한 프로그램은 금물이다. 싱글들이 기혼자들보다 이벤트를 더 원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팀원들의 일정을 일일이 챙겨주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많은 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당신이 여는 행사에 팀원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리듬을 찾아야 한다. 팀원 각자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교회의 다른 행사나 제자훈련,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 다가가려는 연령대에 맞게 모임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라. 30-40대 모임이 연령대에 타격을 맞을 이상, 그 밖의 것들은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어떤 행사를 할지 선택하는 것부터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설교 때는 어떤 예화를 사용할지까지, 모든 것을 30대와 40대에 맞춰 기획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싱글들만 구성된 모임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나이문제에 의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 이성은 자매 인락사 문제 일단락

## 6일 노스쇼어병원서 이송허락



5일 기자회견에서 뉴욕교협 임원들과 이만호 목사부부(오른쪽)가 기도하고 있다. 가운데는 통역인

뇌종양 투병 중인 이성은 자매(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의 인락사 문제(본보 1404호 10면 참조)가 일단락 지어졌다. 노스쇼어 병원 측은 지난 6일 가족들에게 이송 허락을 전했다. 가족들은 "완치가 가능하고 호흡기와 환자 식사 공급용 튜브가 달려있는 휠체어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옮길 곳을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9일 오전 현재 요양병원을 찾고 있어 호흡기 제거에 따른 인락사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일간지에 따르면 국선 변호사 스미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은자매가 진통제가 없는 못 견딜 상태"라며 "성은자매의 병을 감당할 시설이 별로 없는 만큼 동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은자매의 소극적 인락사(존엄사) 집행허락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던 가족들은 지난 5일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스쇼어 병원



이성은 자매 인락사 반대를 위해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유스그룹과 교인들이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함께 했다.

뒤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부부와 뉴욕교협 임원들, 교회 유스그룹과 교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족 측은 "데이비드 스미스 국선변호사가 성은자매가 살겠다는 이야기를 판사에게 보고했고 10일 이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이라며 5일 오전 국선변호사와 의사, 소셜 워커 등 3명이 성은자매와 만났다고 밝혔다.

성은자매는 이 자리에서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노스쇼어 병원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원하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함께한 성은자매의 사촌오빠는 성은자매가 '되원하고 싶다는' 말하는 동영상은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호 목사는 "9월 24일 죽음을 지도 모르는 성은이가 2주가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한국 문화는 자녀가 성인이 돼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동안 성은이가 살아있도록 해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서명과 기도로 후원해준 뉴욕교계와 한인사회에 감사한다. 성은이가 점점 건강해지고 살려는 의지에 꼭 짜 있다. 성은이가 살아서 건강하게 자기 사명 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 (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한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 (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 (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미안하다 에코세대여!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라 부릅니다. 에코세대는 약(1979-1992년)사이를 말하는 데 그들의 미래와 부모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분석한 한국통계는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합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는 만47-55세이고, 에코세대는 만18-31세이며 베이비붐세대는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 에코세대는 954만 명으로 19.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

벌에 대한 통계는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고학력으로 베이비붐세대는 고졸자가 44.7%, 중졸이 17.3%,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5.8%에 그친 반면 에코세대는 4년제 대졸자가 45.5%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미만 대졸자(26.8%)와 석·박사과정(3.4%)까지 합치면 75.7%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도 적게 출산한다는 통계입니다. 25세 기준 미혼비율은 베이비붐세대가 45.5%였지만, 에코세대는 91.7%로 두 배에 달하며 베이비붐세대는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에코세대의 기혼여성 1명당 1.7명 출산한 비율이 절반(49.7%)에 이른다는데 통계입니다. 직업별로 베이비붐세대는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5.1%로 가장 많은 반면 에코세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0.0%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자

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9.6%로 가장 많았고, 에코세대는 보증금 있는 월세(42.5%)에 주로 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세부적으로 20-30대를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삼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30대의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주거비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조차 돌볼 여유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자금대출상환, 과도한 주거비, 생활비용에 고통 받고 있고, 최고의 스펙, 일류기업 입사가 아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풍토와 연애를 일종의 사치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물려줘야 하는 세대는 밝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도 베이비부머세대의 세대에는 낭만이나 미

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힘써 일하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농부들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산업역군들은 국내는 물론 타국에 가서 힘든 노동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여 외화를 벌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 세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고생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정성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모두가 의사, 변호사, 박사, 교수 등 육체노동보다는 지적인 분야에 종사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대학등록금보다 더 비싼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3-4개쯤은 다니면서 기본과목을 물론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계 학원을 다니느냐 아이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일요일에도 보충수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개중에는 교회집회자의 자녀들조차 교회주일학교 출석을 멀리하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

(非-非再) 하였습니다. 항상 학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며칠전 TV에 방영된 내용은 더욱 그들의 불행을 예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집을 담보로 묶어놓고 이자를 받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자를 받아쓰다가 죽으면 집을 정리하여 차액만 자녀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곳 미국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자녀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집을 담보로 살아가야 하는 부모세대도 안타깝지만 힘들게 자라온 에코세대인 자녀들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보람되게 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에코세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하다 에코세대여!

# 푸/ 른/ 초/ 장

지동근 목사  
(정원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한 달만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큰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노예근성이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친 백성 삼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결국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게 됐고 이제는 약속의 때가 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점령하게 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와와의 군대이며 여호수아의 군대에 계시는 첫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뽑아내실 때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1) 믿음의 수고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실로서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0가

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출애굽하게 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도 배를 만들거나 뒤쫓아 오는 군대와 싸우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으며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계명을 주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실천과 믿음의 수고를 요구하셨고 그

수고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물론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밭을 요단강에 담궈야 했고 요단강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수치를 떨쳐버리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마음에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회심을 통해 회개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삶의 실천과 순종이라는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2)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잘라내야 함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

음으로 외쳐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성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멸할 때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 여리고 승리를 통해서 얻는 교훈

1)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함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멸해야 했습니다. 성도들도 남다른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2)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잘라내야 함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

그것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을 삼켜 버리게 됩니다.

3)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는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리고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은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통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됩니다. 여리고 승리를 통한 은혜는 물질이나, 전리품, 혹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4) 전쟁의 승리는 인생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세워져야 함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7일째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는 것은 인생으로서는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는 전략이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믿음의 수고를 행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 여리고의 승리와 승리가 주는 교훈 여호수아 6 : 1 - 16

1) 믿음의 수고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실로서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0가

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출애굽하게 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도 배를 만들거나 뒤쫓아 오는 군대와 싸우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으며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없어도 승리를 주실 수 있으셨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밭을 요단강에 담궈야 했고 요단강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수치를 떨쳐버리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멸하려고 말씀하시고 그 성을 건축하거나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믿음을 방해하는 죄악의 요소가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썩을 잘라내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도시간을 **축복**하라 기도응답을 **축성**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 10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석기도원(한양·경희·LA) 설립 이사장 겸 대표 권일호수/AST대표/KNMA 운영이사 총산회 대표(ITL, M/TL, D, com) 미국 CRUD, Inc)

1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권국의 언약에 취해 온 갈멜산 금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된 기도원으로 성도들, 교회를 섬기고자 재회했습니다. 코리야타는 내 카타리나와 영혼을 코리야타에게 나누고도 함께 있을 수 없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님을 제외한 어떤 어떤 것으로도 내 기도원으로 내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귀한 심의를 인도하는 내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성미주의를 귀담아주시길 믿어주시고 기도원에는 성미주의가 있는 담임목사에게 전하는 권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길 권고,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재회자들은 빛의 헌양이 열매를 거두고 직분자들은 권고하고 심숙한 헌양을 지내게 되어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과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꽃망울이 됩니다. 저같은 기도원 직원만 믿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Logo: Galmelsan Prayer Center  
미주 갈멜산기도원  
LA. MIJU GALMELSAN PRAYER CENTER  
Tel: (818) 306-4912 www.galmelsan.or.kr  
담임목사: 조성근  
부목사: 황건영 | 전도사: 김성희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인 성은 양의 소극적 안락사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에 또 한번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3면, 제1404호 10면 참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라고해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같은 목회자의 가정과 자녀가 겪는 고통이 절단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길 간구한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안락사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안락사는 다 같은 안락사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사는 음식이나 공기나 물과 같이 인간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행한다. 이런 필수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살인에 해당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환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기간 동안 가능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진정제나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잠31:6-7).

다른 안락사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자연적 소극적 안락사'이다. 이는 기계적인 장치나 다른 인위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생

을 권리를 지지한다. 어떻게 계산을 해보아도 조간부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은 형편이다. 주별로 보면 오리건 주는 법적으로 허락하고, 그 외에도 텍사스, 몬타나, 워싱턴 주에서 허락한 경우들이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양하다. 1)누구든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 2)헌법상의 사생활권에는 존엄한 죽음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3)안락사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4)안락사는 가족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한다. 5)안락사는 환자가족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6)안락사는 사회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장도 분명하다. 1)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2)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다. 3)안락사는 가족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4)사회적으로 약용될 소지가 많다. 5)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파괴한다.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포괄적으로 수용될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악용의 가능성은 심각하다. 역사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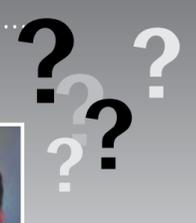
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사울의 죽음을 도와주었던 행위를 자비로운 것이라고 칭찬하지 않았다. 다행은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삼하1:13-16).

성경은 안락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창1:26,27; 9:6). 그래서 살인을 한 경우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거두실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창9:6).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창2:7; 시21:4; 36:9; 행17:25).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죽음을 순간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신32:39; 삼상2:6,7; 시68:20).

하나님은 심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목적이 생략되어 있다. 다른 계명에는 목적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는 그것이 생략되었을까?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목사님의 성경적인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0권사

**A:**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히려 회개하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신 것이 오히려 옳은 대답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영어 사도신경이나 베포3:18-19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난을 당한 것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이 십자가 죽은 후에 낙원에 계셨지 3일간 지옥에 갔다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사도신경의 사본 중에 아퀼레이안(Aquileian creed)을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었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아퀼레이안 사본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 승리한 것을 선포**

주후 400년경에 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문구를 해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선조림보(Limbus Patrum)에 가서 거기서 구옥을 기다리던 구약성도들에게 전도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본은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갔다는 교리는 베포3:18-19절을 근거로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가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자의 대표인 노아시대의 불순종하던 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전도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연옥(Purgatory)설을 주장합니다.

어거스틴, 제롬, 알포드 같은 사람들 역시 이 구절을 가지고 노아시대 전도설을 주장합니다. 이는 선재시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전도하셨으나 불순종하여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옥에 있는 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은 개혁신교의 헬만 바빙크의 해석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선포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옥에 있는 영에게 하나의 선포사건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개선 선포이다"고 말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이순한 목사님 공동서신 강해주석을 보면(P.176-177) 둘 다 시간적으로 부정과거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분사는 주동사의 동작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시제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가 됩니다. 여기서 '전파하셨다'는 헬라어로 에케뤼센으로서 이 말은 선포하고 공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다'(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즉 부활 승리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 성경이 말하는 안락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사회학적으로 안락사는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그 구분의 방법이 다양하다.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로 나눈다. 또한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부른다.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서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로 나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이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법정과 입법부 회기 동안 자주 토론되고 있는 안락사의 유형이다. 많은 교회와 보수와 복음주의적 리더들이 적극적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적인 교회들은 허용하는 편이다. 적극적 안락사의 옹호자들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주장한다. 또한 안락사가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무고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이 없다.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면 가족들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짐도 쉽게 정리된다. 한 사람의 생명에는 어떤 가격표도 붙일 수 없다.

또 보통 안락사라고 지칭할 때는 '비자연적 소극적 안락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연적 소극적 안락

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자연적인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적 소극적 안락사라고 해도 심장과 다른 기관들이 건강 한 의식불명의 환자들이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코마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마다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현대의학은 보통 뇌파의 정지를 뇌사, 죽음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심장의 정지를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대중은 안락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놀랍게도 안락사나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림대법학부 이인영 교수가 2003년 성인 1020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10명 가운데 7명은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동의했다. 겐립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도 생명보존장치를 하고 있는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86%, 고통 중에 있는 보통 말기에게는 55%가 소극적 안락사와 '죽

로 볼 때도 나치독일은 진화를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소위 안락사라는 형태로 사회진화론이 집행되었다. 처음에는 불치병자에게, 다음으로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그리고 결국 600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 등의 소수민족에게 살인이 행해졌다. 그들의 논리는 '사회적 부담'이 된다는 명목이었다. 만약에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사회는 죽음을 단지 권리라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안락사를 처방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비단 나치독일 뿐 아니라 죄악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먼저 성경에 나온 안락사의 예를 살펴보자. 아비멜렉이 베테스에서 망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려다가 한 여인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두골이 깨어졌다. 그는 여인에게서 죽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부하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게 했다(삿9:53,54; 삼하1:6-10). 고대판 안락사에 해당한다. 그는 자신의 불명예스러움과 육체적 고통을 단축하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써 또 하나의 범죄 곧 살인을 하였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 도망갈 수 없음을 알고 표로 잡혀 지옥을 당하

빠앗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제6계명에서 생략된 목적어는 '타인과 자신' 일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 노르만 L. 가이슬러는 안락사의 반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1)안락사는 생명에 대한 주권과 모순된다. 2)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거역한다. 3)안락사는 자살 또는 살인의 한 형태이다. 4)성경은 안락사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5)안락사는 인도주의적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6)안락사는 가족과 사회를 죄인으로 만들어낸다. 7)안락사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행20:28; 고전6:19,20; 7:23; 벵전2:9).

안락사 논쟁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넘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성은이가 완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주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한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상업용 계산기, USB 메모리, 볼펜, 머그잔, 티셔츠, 배너, 옥외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네시아의 푸비안(PUBIAN)족



푸비안(Pubian) 사람들은(람퐁 Lampung이라고도 알려진) 수마트라의 서쪽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람퐁 지역에 살고 있다. 람퐁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종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한 집합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사실상은 이 지역에는 많은 다른 인종적 종

족들이 살고 있다. 흩어져있는 푸비안 거주자들은 동쪽 저지대의 전자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수세기동안 푸비안은 근처 부족인 아반인 아붕(Abung)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들이 그 지역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중앙 람퐁의 작은 한 지역은 그들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되기 시작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쪽 사마트라에 3백만 자바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 동쪽 자바인들의 대부분이 람

퐁 평원에 거주하기 시작함으로써 푸비안과 그 이웃들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해야만 했다.

#### 삶의 모습

푸비안 거주자들은 연대기적인 아닷(adat)-전통적 법을 구성하고 각 가족 혹은 부족들은 그들 자신의 집을 가졌다. 이러한 마을들은 3,000개가 넘는 많은 개인 집들이 100여 부족에 따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부족의 집에 살고 있다. 한 마을은 또한 일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다양한 계절적인 거주지들이 있다. 그들은 근접지의 깨끗한 숲이 존재할 때까지 계절적인 거주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푸비안은 일반적으로 식물과 죽마로 만들어진 집에서 산다. 이 집들은 세사트(sesat)라고 불리는

하나의 작은 집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 세사트는 하나의 방을 가진 집이며 작은 방들이 나뉘어져 있다. 이 마을의 정부는 세사트에서 회의를 연다. 부족장들로 구성된 이 마을의 의회는 마을을 다스리며 어떤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안정시킨다.

람퐁에 있는 푸비안은 주로 쌀을 경작하는 농부들이다. 이 쌀은 식물을 태우면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경작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쌀의 수확기 이후에 그 땅은 후추를 경작한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후추 경작은 푸비안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 또한 종종 매우 비싼 종족축제를 행사하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다. 어업은 쌀을 경작할 수 없는 습지에서 중요하며 집에서 물소, 소, 염소, 가금류와 오리들을 기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척지를 개간하며 모든 경작지역에서는 후추농장과 부족 집들이 마을들이 부족의 재산이다. 소유권의 규칙은 전통적 법규에 의해 정해진다.

#### 신앙

무슬림과 거래하는 섬사람들에 의해 이슬람은 13세기 말엽에 수마트라 안으로 그들의 길을 열었다. 이슬람의 영향은 느리게 푸비안 문화를 약화시켰으며 지역 족장들은 마침내 그들의 힘을 잃어 버렸다. 마침내 이슬람법들이 그들 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푸비안은 직접적으로 독일 정부에 의해 지배됐다. 오늘날 사실상 푸비안의 대부분의 사피 무슬림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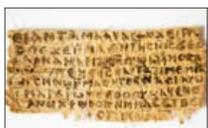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비우호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은 푸비안이 많은 학대를 받았고 매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 어려움은 시민적 불안함을 이끌었고 자바의 새로운 이주민들과 함께 싸움을 겪기도 했다. 비극적으로 푸비안의 종교적 증인의 주된 근원이 자바 기독교인이다.

현재에 푸비안 언어로 가능한 기독교 매체는 없으며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한 선교단체가 현재 570,000 푸비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알려진 바로는 기독교인은 60명이 못된다. 푸비안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명확히 들어본 적이 없다. 더 많은 사역자와 기도의 효과가 그리스도를 접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예수결혼설 다큐멘터리 방영 무기한 연기

[미션라이프]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이 지난달 30일 방영할 예정이던 "예수 결혼설 파피루스 관련 다큐멘터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 채널 대변인은 "문서에 대해 더 정밀한 검사를 거칠 때까지(방송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고대 파피루스 조각

스미스소니언 채널은 최근 '고대 파피루스'에 대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며 예고편을 내보냈다. 그러나 현재 웹사이트에는 '방영하지 않음'이란 짧은 공지만 걸려 있다.

'예수 결혼설' 논쟁은 하버드신학대학원 역사학자 캐런 킹 박사가 '내 아내의...'이란 내용이 담긴 고대 파피루스 문서를 해독,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 콤투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로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런 킹 박사도 "이 문서만으로 예수가 결혼 했다, 하지 않았다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더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집트, 코란 모독 혐의 소년 2명 석방

이집트 당국이 코란에 소변을 본 것으로 지목돼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던 9살과 10살의 콤투 기독교도 소년 2명을 4일(현지시간) 풀어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관리들이 전했다.



소년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이 살던 마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 카이로 남쪽에 있는 베니 수에프주(州) 에스바트 마르코 마을에는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스크로 몰려와 이슬람교도들에게 당국의 조치에 맞서 쫓겨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외지에서 온 이슬람교도들이 모스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코란 모독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치안 관계자들이 사태 확산을 막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종교 모독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늘고 있고, 이집트 전체 인구의 8-10%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 콤투교도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같은 비난의 일부는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영화로 인해 촉발된 파문 이후 이슬람 세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콤투교도들에 대한 범죄수사도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에스바트 마르코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9살, 10살 소년의 사건만 해도 이 소년들이 코란을 모스크 뒤로 갖고 가 거기에 소변을 보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보았다고 지역 성직자는 말했다. 그러나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소년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그 책이 코란인지조차 모른다고 상반된 말을 했다. 이 마을의 3분의 2는 무슬림, 나머지 3분의 1은 콤투교도이다.

이집트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근 5건을 포함, 지난해 1월 시민혁명 이후 접수된 종교모독 관련 고발은 모두 17건에 이른다. 남부 아시우트 지역의 한 기독교계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 이슬람 자료를 올렸다가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콤투교도 여자 교사는 수업 시간에 예언자 무함마드에 불경한 말을 했다는 학생들의 고발로 구금되기도 했다.

### 이집트 대통령, 시나이 피신' 콤투교도 위문

이집트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5일 시나이 반도에서 살해 위협으로 고향을 떠난 콤투교도 가족들을 만났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그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콤투교도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이집트 국영 방송은 이와 관련, 무르시 대통령이 시

나이 북부 엘아리쉬의 한 모스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장면을 방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지 일간지 알마스리 알움은 무르시 대통령이 콤투교도들의 고향인 라와 마올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엘아리쉬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시나이 반도 북부 라와 마을에는 약 7가구의 콤투교도 가족이 거주했으나 지난해 주 이슬람 무장세력의 살해 위협을 받고 고향을 떠나 엘아리쉬 지역으로 이주했다.

시나이 반도 북부에는 콤투교도 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집트 콤투교도는 지난해 초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이슬람주의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종교 차별을 받지 않음에 우려해왔다. 게다가 이슬람권 전체에 반미 시위를 촉발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모독 영화 제작자가 콤투교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보복도 걱정하고 있다.

콤투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이집트 전체 인구 8천500만명의 약 10%가 콤투교도다.

### 성서공회, 아이티에 성경 2만500부 3차 기증

대한성서공회는 4일 경기도 용인시 반포센터에서 제3차 아이티 크레용어 성경 기증식을 가졌다.



성서공회는 2010년 1월 대지진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예정통합 총회 사회봉사부의 후원으로 아이티에 성경을 기증해왔다. 2010년에 성경 1만1500부, 지난해 성경 1만600부와 찬송가 1만500부를 보낸 데 이어 올해 성경 2만500부를 제작해 전하게 됐다. 이번엔 배편으로 보낸 성경은 다음달 중순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도착, 아이티 전역의 교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권의현 성서공회 사장은 "세 차례에 걸친 성경 기증을 통해 구호사업의 지평이 북을 선교로 확대됐다"고 자랑하면서 "질량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아이티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낸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통합 사무총장 이흥정 목사는 축사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티 사람들에게 치유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 '기독교국가' 무색... 기독교도 50% 첫 붕괴

미국을 더 이상 '개신교(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 어렵게 만드는 통계가 9일 공개됐다. 미국의 조사기관 퓨포럼이 올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오차범위 ±0.9%)에 따르면 자신이 개신교도(Protestant)라고 밝힌 응답자(성인)는 48%에 불과했다.



과거에도 특정 기관의 조사에서 개신교도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50% 미만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오차범위를 넘어 '확실히' 절반 밑으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는 5년 사이에 5% 포인트 증가한 20%에 달했다.

한국에서는 통상 '기독교'로 불리는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계기로 로마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성립된 다양한 그리스도교의 분파를 총칭하는 말이다. 청교도로 불리는 미국 건국 주도 세력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교파이자 사실상 미국의 국교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대 개신교의 총본산 격인 미국 역시 개신교가 급격히 영향력을 상실한 유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교계의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가 없다고 밝힌 미국인 중 압도적 다수는 정치적으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무교(無敎)자'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퓨포럼은 소개했다. 또 '무교' 응답자 가운데 낙태권리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인 중 5분의1이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밝혀 '무교자'의 인종별 집계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 성인의 3분의1이 무교라고 밝혀 9%대를 기록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인 중 갈수록 '무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임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성인 남녀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인구 중 개신교도 비율 관련 조사는 그보다 많은 1만7천여 명의 응답을 받았다.

# 담임 목사 청빙

덴버 한인 장로 교회에서는 양 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며 뚜렷한 신앙 비전과 겸손으로 목양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
2. 정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이상 단독 목회 경험이나 부목사 경험이있는 분.
3.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부부 35세 ~ 50세 초반)

#### 제출 서류

1. 본인과 사모 소개서(최근 가족 사진 첨부)
2. 신앙 간증문과 사역 비전 및 계획서
3. 최근 셀프(6개월 내) 동영상(web address) 이나 CD 2회본
4. 목사 추천서(2인 이상)
5. 학위 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및 안수 증명서

#### 참고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시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제출처

우편 혹은 e-mail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7765 Kipling St. Arvada, CO 80006 | 교회: (303)422-8950 | info@kpcod.org  
덴버 한인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병욱 장로 (303)422-8777

#### 제출 기한

2012년 10월 31일(달일 도착분에 한함)

# 담임 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화실현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목회 5년이상 경험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oglobal.net  
담당자: 담회서기 이상목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 참고 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의는 이메일로 만 바랍니다.
2.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3.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담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6개국에  
보내는  
최고  
간접  
신문  
입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1. 사명 가꾸기

사모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성들 중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된 남자와 함께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남자도 하나님의 종된 목사보다 더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육신을 입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신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을 통해 이루고 싶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뽑아내어 종종 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 남자와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여성. 그러기에 사모는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성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같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을 하니 이는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나니라"(요3:34).

사모가 행복한 이유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모의 남편인 목사에게는 축도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축도에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10:13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행복, 평안, 기쁨, 화평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 특히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토부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함께 즐긴 것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씩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나 마귀

의 꼬임으로 아담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을 찾아나선 하나님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아, 내가 내 아들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토부를 누리야 하는데 왜 그런 자리에서 쫓겨났고 있느냐? 토부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나는 절대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창3:15). 아담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위하여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위하여" (민6:22-24). 이것이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간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토부가 무너져 내렸을 때,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살롬(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토부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가 짚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강(살롬)을 얻었고 그가 재책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사53:5). 예전대로 성자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20:19)라고 하십니다.

신명기6장의 구약의 축도는 성부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자예수님의 성취적 선포입니다. 십자가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자신 있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렇게 찢린 자국이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른 흔적이야", "토부 회복해 주려고 제물된 흔적이야" 하시면서 다시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배에도 목사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하십니다. 축도하는 목사님이 곧 나의 남편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자는 12세 때 PK(Pastor's Kid)로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교회 찬마루바다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2시간씩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 사모가 되고 싶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엔 목사의 직위가 이렇사 다음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너무 고생스런 직업이었기 때문이지요. 또 아버지는 뒤늦게 신학공부를 하여 개척을 한 터이라 그때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목사에게만 집집을 가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유는 지금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떠나고 그이도 떠난 이후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해질 뿐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멋있었던 것은 축도하실 때였습니다. 그 후 남편의 축도 모습이 또 가장 멋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축도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무조건 좋기만 하였고 목사의 사모가 된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던 때가 바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축도를 하실 때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토부)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성부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성령하나님이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하나님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살롬을 우리는 마땅히 누리려야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회복시켜 놓으신 평강을 우리가 또 다시 소홀히 하고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겠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동댕이치는 일 외에 또 해야 할 일이 무엇 있겠다?"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는 이 잃어버린 토부를 찾아서 평강을 누리도록 성도들에게 축도할 권세를 부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시는 그 특권을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회자와 함께 사는 아내인 사모는 평강을 누리는데 무엇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른 어느 여성보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모들이 실제로는 가장 힘들어 하고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살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런 사모들을 볼 때마다 저의 가슴은 메어져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마침내 사모들을 위해 나가라고 다시 일컫 주셨습니다. 다시 이 평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오지에서 힘들어 하시는 사모들을 향해 현장으로 나갈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니 이 사명 다하라고 죽어가던 육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토부를 잃어버린 사모들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사모들인데도 가장 많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모들의 눈에는 눈물이 떠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런 사모들을 볼 때마다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어 오늘도 사모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크리넥스가 되어 공을 닦아 그들에게로 가고 싶어집니다. 지구촌 끝까지라도 가서 그들의 아픈 가슴 어루만지며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목회서신

## 못 말리는 교회



####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원래 교회 이름은 교회가 위치한 지명을 넣어서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가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지역에 교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짓는 데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가령 일산신도시만 해도 교회가 거의 이백 몇 십 곳이 넘는다 하는데, 일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교회이름을 지으면 애초부터 없습니다. 일산교회 일산중앙교회 일산제일교회 정도 짓고 나면 더 이상 지을 것이 없습니다. 동 이름을 넣어서 지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같은 동네 수십 개의 교회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교회 사랑교회 사명교회 주님의교회 같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물론 개척자의 비전이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예배 후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았는데 그 이름이 특이하더랍니다. '못 말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이름을 많이 들어보아도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철학과 신앙이 강하게 들어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못 말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 혹은 '사탄이 못 말리는 교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은 우리 교단 내에 설립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초정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이름이 '토마토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왜 교회이름을 토마토교회라고 지었을까?' '토마토 농사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궁금증을 가시지 않았습다. '언제 설명을 들 수 있을까'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 개척자목사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이름을 토마토교회라 지은 것은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빨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참 의미가 깊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 들어있는 비전입니다. 비전 없는 이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좀 생소하고 익숙지 않은 이름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전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i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oor.org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대림부: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예배: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EM, 대림부: 오전 5:30 주일예배: 오후 11:00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주둔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151-8523, Fax: (213)977-1183 501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Holyway+영이예배) (KDC-한국예배) 주일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저녁 8:0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등문교회</b>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예배: 오후 7: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b>등양선교회</b> 담임목사 :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 2부예배: 오전 9:30 영이 3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목회실: 1층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 송정병 주일 1부: 오전 8:30 (영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j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청년) 청, 장년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승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b>세계비전 교회</b> 담임목사 : 김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영이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A), 사택(818)98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이)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공로특별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b>엘비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이)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이)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3)384-4272, Fax: (213)384-9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인랜드교회</b> 담임목사 :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 www.inlandchurch.org Tel: (909)822-2224, Fax: (909)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b>창대교회</b>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이)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840, Fax: (909)388-28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530-4040(영어),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1:15(EM) 주일 4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년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Fax: (323)685-0009 Fax: (323)68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09. 진화론의 외판원 크로마농인

현대 인류의 시작! 이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뇌에 떠오르는 인물이 크로마농인이고 20만년 혹은 10만년, 더 길게는 100만년 전을 떠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교과서나 기타 미디어의 교육을 통해 크로마농인과 20만년 같은 긴 세월이 아이콘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대표 격인 크로마농인은 약 4만년-1만년 전에 살았으며 최초의 현대인은 약 20만년 전 혹은 10만년 전이라고 한다. 이 연대는 몇 백만 년에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성경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길다. 만약 어떤 크리스천이 이런 세속적인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 1) 인류 진화 계통도의 비리

지난 2009년 세계최고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 10월 2일자 표지에 그동안 발견되었던 인류의 조상들 중에 최고로 오래되었다는 440만년 전 화석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440만년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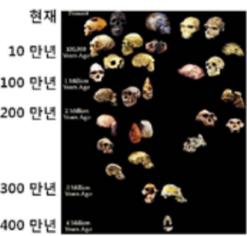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소동위원소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 측정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뼈들은 연대를 측정하지 않는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는 유명한 작가인 James Shreeve는 이렇게 말했다.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뼈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화석의 나이는 측정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전문가라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수십만 명의 진화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지질시대는 결정된 화석의 나이를 토대로 만들었다. 화석이나 지층 나이를 측정한

것도 아니고 화석이 순서대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수십억 년의 생물 역사를 이야기 하는 진화론은 가짜인 것이다).

흔히 보는 인류의 진화 계통그림도 물론 사실이 아니다. 두개골로

## '분자시계' 방법은 진화론과 순환논리 입각한 비과학/논리적 인간유전자지도에 의한 인류역사는 약 5000년 전 169세대



인류의 조상들?  
이 화석들이 연대와 순서는 측정되거나 발견 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믿음으로 결정 된 것이다!

도록 꾸민 속임수(?)라 할 수 있다. '분자시계의 원리'는 진화론과 순환논리에 근거한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한 조상인 간단한 세포에서 진화되었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사실이면 진화과정에서 여러 세대가 지나다보면 DNA차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차이가 크면 오래 전에 서로 갈라져 진화되었다고 가정한다.

집단지파 사람은 600만년 전에 진화과정에서 서로 분리되어 각각 진화되어왔다고 가정한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가 생겼으므로 각 세대가 지날 때마다 평균 몇 개의 DNA가 변화하는지를 계산한다. 이 변화속도를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보통 미토콘드리아 DNA를 사용한다) 차이에도 적용시키면 인류의 세대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인류의 시작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20만년이란 숫자다. 그런데 이 변화속도를 살짝만 조정해도 인류의 시작은 고무줄

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게 된다. 최근의 분자시계 연구들 중에는 인류의 시작이 6000년밖에 안 된다는 것까지 발표되었다(Science 279: 28-29).

결론적으로 이 20만년을 도출한 '분자시계' 방법은 진화론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순환논리에 입각한 것일 뿐 아니라 DNA변화 속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거나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3)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

생물학계의 최대 성과라면 2003년 인류의 DNA를 다 읽어 인간유전자지도(human genome project)를 작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인류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듯이 '인류는 한 혈통임이 다시 한 번 확연한 순간이었다. 또 2004년 세계최고의 과학지 Nature(9월 30일자)에 가계를 기준으로 연구 발표된 현 인류의 조상에 대한 모델링 결과는 피부색과 언어와 문명에 상관없이 전 인류의 조상이 약 5000년 전 169세대 전이었다고 한다. 덧붙여 이 연구결과는 아무리 오차가 크다 해도 몇 세대이상 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때는 성경 역사의 어디에 해당할까?

### 4)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 역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 역사는 불과 6000여 년이다. 아담에서 시작한 인류 역사는 약 5000년 전 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노아홍수(BC 2350) 이후 약 100년 만에 바벨탑 사건으로 각종 언어가 생기는 바람에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민족과 나라와 문명이 생겨났다. 현재의 인구를 생각해 보거나 인종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시간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류의 문명 발생을 보아도 문명들이 점점 발전된 흔적이 없다. 여러 곳에서 BC2200년경을 기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 고고학이 말해주는 것은 바인드 바벨탑의 역사를 확인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현생 인류의 시작은 약 20만년 전 혹은 크로마농인 같은 사람들 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시작은 사실이 아닌 정보가 된다. 그 순간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

버리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호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 아닌 책이 된다. 진화론의 외판원적인 크로마농인에 속하는 안 된다! 크로마농인은 최초 현생 인류가 아니라 유원인들의 조상들 중에 하나다.

최초 인류는 약 6000여 년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창1장, 2장).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해준다(창3:38). 이 설명을 듣고 보면 "아하!"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완벽하게 꾸민 다음에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렇게도 기뻐하셨는지, "왜" 죄 지은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노아 당시 그렇게 한탄하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아바라고 부르라 하는지 너무 쉽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답을 흐려 인류가 갈팡질팡하다가 죽도록 몰아가고 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그러나 타락 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할 죄인들인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성품칼럼 (41)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성품리더십(9)-인내의 리더십

통계적으로 가장 지적력이 높은 시기는 임사한지 3년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첫 1년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2년차에는 뭐가 알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3년차에는 이제는 다 안 것 같아서 이 길이 과연 내 길일까 고민하다가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은 전문가가 되기 어렵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 되어 사회적으로도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다중지능이론(多重知能理論)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창의성 있는 전문가는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다"고 말했지요. 자신의 길을 꾸준히 10년을 인내하며 걸어가 본 사람만이 일종의 전문적인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꾸준히 자신의 길을 인내하며 걸고 묵은 사람이 창의적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600여 년 전 인쇄경연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 성군이 있지요. 바로 조선의 위대한 국가경영 CEO, 세종대왕(世宗, 1397-1450)입니다. 그는 32년의 재임기간 중 국가와 민생안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조선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굳건한 인내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진행을 피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획과 실행을 계속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법전정비에 17년, 공방정비에 26년, 오례정리(五禮整理)에 30여 년, 고려사편찬에 30여 년, 6진 개척에 10년, 훈민정음 창제에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하면서 긴 인고의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냈지요. 그 결과 오늘날까지 세종대왕은 사공을 뛰어넘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랍니다. 피하고 싶은 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역경과 고난들이 모여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열매는 기대할 수 없지요. 끝이 보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그 순간, 딱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과학자, 저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에게 한번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프랭클린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백 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망망입니다. 하지만 백번째 번째 내리쳐 보면 돌은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쳐온 백 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안내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7-8265, Fax: (303)427-8267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703)272-0281, Fax: (703)272-9777 2890 Morris Ave, Landover, VA 22048	<b>백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한국시간) 주일2부예배: 오전 10:30(한국시간) 금요기도회: 오후 7:00(한국시간) 주일학교: 오후 6:30 Tel: (703)272-0281, Fax: (703)272-9777 2890 Morris Ave, Landover, VA 22048	<b>맨얼교회</b>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410)297-2226, Fax: (410)297-2226 219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완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1)344-4478, Fax: (301)344-4477 7000 Sainsbury Ave, Belts, VA 22024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410)297-3448, Fax: (410)297-3448 7000 Sainsbury Ave, Belts, VA 22024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704)242-0281, Fax: (704)242-0281 701 Scalesboro R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한국시간)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301)429-2181 8007 Pacific Ave, Rockville, MD 20858	<b>시애틀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15 주일2부예배: 오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206)327-2281, Fax: (206)327-2281 4045 4th St, Seattle, WA 98108	<b>시카고에브레교회</b>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47)384-8424, Fax: (847)384-8424 877 Schenck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b>알라바마 재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205)870-8028, Fax: (205)870-8779 809 Kirby Ave, Lufkin, TX 75801	<b>앵커리지델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307)344-6648, Fax: (307)344-6187 8320 Greenwood St, Aron, AK 99518	<b>앨파스델린교회</b>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한국시간)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202)915-1719, Fax: (202)915-1719 5619 Aron Ave, Aron, VA 2202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Tel: (214)242-0281, Fax: (214)242-0281 701 Wheeler Ave, Houston, TX 77042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4)334-0705, Fax: (254)334-0707 208 N. 8th St, Abilene, TX 7690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703)272-0281, Fax: (703)272-9777 4913 Matthews Rd, Alexandria, VA 223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04)272-0281, Fax: (804)272-9777 10201 Robison Rd, Richmond, VA 23225	<b>큰문교회</b>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410)297-2226, Fax: (410)297-2226 2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253)325-2226, Fax: (253)325-2226 7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253)325-2226, Fax: (253)325-2226 5702 E. B. St, Tacoma, WA 98446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253)325-2226, Fax: (253)325-2226 8424 E. Tacoma Ave, Tacoma, WA 98444
<b>렘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한국시간)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480)778-0115, Fax: (480)778-0115 1120 E. Stinson Rd, Chandler, AZ 85286	<b>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60)469-4738, Fax: (860)469-4665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08)778-0115, Fax: (808)778-0115 152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5	<b>에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303)729-7004, Fax: (303)729-4282 1063 3rd Ave, Broomfield, CO 80020	<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808)778-0115, Fax: (808)778-0115 1527 E. Bernice St, Honolulu, HI 96815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08)778-0115, Fax: (808)778-0115 2122 Malakoi Rd, Honolulu, HI 96822	

#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열린다

## “북한 회복과 통일은 기도응답으로 이뤄져야”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와 OC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가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주관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11일(목) 오후 8시에 첫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열리게 된다.



좌로부터 엄영민, 한기홍, 변영익목사가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지난 4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주최하는 두 교협 회장과 한기홍 목사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이끈 한기홍 목사는 “남북이 갈라진지도 오래됐고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때에 이 기도운동이 개교회로 전파돼 핵이나 미사일보다 통일을 앞

당기는 힘 있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북 간의 통일은 기도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영민 목사는 “독일의 통일은 동독에 위치한 니콜라이교회에서 수

년 동안 기도한 것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계기였다. 통일의 기일이 무르익는 이때에 이 주빌리 기도회가 통일을 이루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성자 기자)



닉 부이치치간담회장에서 강단에 올라와 결신을 다짐하는 청소년들.

## KYVC 닉부이치치 초청 청소년집회 성료

지난 6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목사)에서 열린 닉 부이치치 청소년집회가 2000여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모인 청소년들은 부이치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임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으며 300여명이 넘는 결신자

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결신을 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KYVC 스태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집회”였다고 행사 후 원해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기사제공: KYVC)



미주장신대학교에서 열린 2012년 가을신앙 사경회에서 강사로 나선 손인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목회란 무엇인가’ ...손인식 목사 미주장신대학교 2012 가을신앙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12년 가을신앙사경회를 2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개최했다. 이번 사경회는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 강의를 인도했다.

제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차원이 다르게 살게 된다. 이것을 영성의식이며 영성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라 말했다.

손 목사는 오전에 열린 첫 강의는 ‘다윗과 골리앗: 목회는 야성이 다’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열린 강의에서는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목회는 행동이다’라는 제목으로 인도했으며 강의가 마친 후에는 조별토의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오후 1시 ‘야곱과 이스라엘: 목회는 수준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인도한 손인식 목사는 “인간이란 존재는 차원으로 사는 존

## 주일학교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 ‘지저스키츠’ 주최 제6회 무료 교사 워크숍

주일학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Jesus Kidz(대표 임은희)가 ‘제6회 무료 교사워크숍’을 지난 6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임은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찬양응용 배우기, 공작시간(Arts & Craft), 교재사용법, 그리고 이동규 목사(전 세계기독교신학대학 교수, 영계한인교회 담임)가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임은희 대표는 “중대형 교회들의 경우 교사로 헌신된 분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소형교회의 경우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혼자서 모든 걸 다해야 하는 것이 소형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영혼을 섬기는 것은

변영익 목사는 “북한의 회복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단결된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오는 1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앞으로 오렌지카운티나 남가주 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확산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국기도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한국에서는 2004년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으로 시작된 ‘주빌리연합기도운동’으로 명칭을 바꾸어 서울의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춘천과 통영, 부산, 경인, 대구 등지에서도 주빌리 기도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한국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공동대표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 교회 담임),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섬기고 있다.

(이성자 기자)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린 지저스키츠 주최 제6회 무료교사워크숍에서 크레프트를 배우고 있는 참가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고 부탁하신 것”이라 말했다.

임 대표는 “주일학교 교사는 단지 봉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007 제임스본드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래프트 시간에는 구호경 집사가 할로윈과 추수감사절을 주제로 공작시간을 인도했으며 이동규 목사의 특강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지역 워크숍은 오는 13일(토) 같은 시간에 흘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 4.29 LA폭동 20주년기념 종교포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가 주최하고 연합감리교회(UMC)가 후원하는 4.29 LA 폭동 20주년 기념 종교포럼이 JJ드랜드호텔에서 5일 오후1시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기독교계에서는 김영진 목사(UMC, 동광교회 담임)가 불교계에서는 종매 스님(Loyola

Mary Mount University 종교학과 교수), 원불교계에서는 양윤성 교무가 발제자로 나서 4.29당시 상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각 종교 별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변영익 목사는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성성용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심정

### 박재호 목사 (브라질새소망교회)

성성용 목사님의 천국환송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성 목사님의 서거를 안타까워하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애통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성 목사님이 저와는 사제기간이었지만 평소 성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친형제 같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성 목사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멀리 브라질에서 성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 받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여일 전 목사님이 저와 만났을 때 목사님은 저에게 당신의 혈액형이 좋아서 장기 기증을 받기가 남들보다 쉽다고 하며 곧 장기 기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병원에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도록 먼 곳에 가있지 말라고 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시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 목사님은 이해심이 많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성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성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와서도 한국에 있을 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예수사랑, 교회사랑, 교단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무어라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물길래 “미주예성교회”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얼마 후 정말 새로 설립하신 교회에 “미주예성교회”라는 교회명을 붙인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 깊이 성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은 물론 교회와 교단까지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목사님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아닌 영적 성경적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성 목사님의 진실된 신앙적 자세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 시간 성 목사님의 천국환송예배에 즈음하여 저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딱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제단에 쏟아 바치고 떠나가신 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애도와 존경과 칭송을 드립니다. 성 목사님은 주님의 복음전파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미국에 오셔서 재차 심장수술을 받고 고통 중에도 쉬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며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돌보며 목양일념으로 미주예성교회를 섬기는 목회에 열과 성을 다 하였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불사르셨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힘있게 능률적인 목회를 하며 남은여생을 온전히 주님의 복음사역에 헌신코자 위험한 심장외식수술을 받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행방으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 목사님께서 세상에 계시실 때는 많이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항상 일에 쫓기고 긴장하며 고달팠겠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긴장도 갈등도 없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쉬실 줄 믿습니다.

성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서도 미주예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우들을 걱정하고 계시 줄 믿습니다. 또 예성교단을 위하여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 목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저희 모두는 목사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욱 주의 일에 힘 쓸 것이며 성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미주예성교회 성도들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말씀중심, 교회중심, 은혜중심의 진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주후 2012년 10월 4일



4.29 LA폭동 종교포럼에서 변영익 남가주교협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7767, FAX: (02)325-8259 서울시 서초구 삼성동 1550-25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8794-95 군포시 남동로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4292-9305, FAX: (02)328-4292-930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244-0245, FAX: (02)328-0244-0245 김포시 남동로 281-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경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새연교회</b> 담임목사: 소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경락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승평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경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정종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장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정주주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8-0451-5, FAX: (02)328-045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31

# 동부교계 게시판



## PGM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회

PGM(세계전선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PGM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PGM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한 이 기도회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장소는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EM 예배실.  
▲문의: (610)397-0484

## 제 2회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제 2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 골프대회가 10월 29일(월) 오전 11시 클리어뷰 골프코스에서 열린다. 휴일원상에는 캐달락 1대, 근점상 한국왕복항공권 등과 트로피 등이 수여된다. 회비는 100달러이며 점심, 저녁, 카드, 그린피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과 경품이 준비된다고.  
▲문의: (718)683-0678/김준남 목사

## 메트로폴리탄인연합감리교회 성전인수 감사예배

메트로폴리탄인연합감리교회(담임 한영숙 목사)가 오는 14일(주) 설립30주년 기념을 겸해 '성전인수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한영숙 목사가 펴낸 누가복음 강해설교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출판식도 함께 연다.  
▲문의: (201)932-7746

## 월드밀알찬양대축제2012

월드밀알찬양대축제2012가 오는 21일(주) 저녁 8시30분 카네기홀에서 개최된다. 뉴욕에일장로교회 찬양대, 김상돈 목사, 전용대 목사, 뉴욕과 뉴저지 장로성가단 등이 특별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이나 좌석표를 카네기홀 박스오피스에서 받아야 한다.  
▲문의: (718)460-5108

## 크리스천의 건강 세미나

'크리스천의 건강 세미나'가 오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저녁 8시30분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갑선 목사(스콜라멘토지구촌교회 담임, 토양미생물박사)로 △24일에는 '천국의 하나님'(출15:26):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병-자연치료 및 식이요법 △25일에는 '음식과 건강'(창1:29): 소화기, 배설기, 순환기-대사 기능 질병의 식물치료법 △26일에는 '건강한 영 건강한 몸'(살전 5:23): 각종 암, 노인성 질환, 갱년기, 아토피-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문의: (718)899-8309

## 롱아일랜드/코맥 가을맞이 코리안 야외공연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장재우 목사)와 코맥요안국학교가 주최하는 롱아일랜드/코맥 가을맞이 코리안 야외공연이 오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Harvest Fair 중)까지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파킹장 앞뜰에서 열린다. 한국 전통체합(오전 10시-11시), 한국 전통음식교실(11시-12시), 공연(태권도, 댄싱, 전통게임/제기차기 등, 12시-1시) 등이 펼쳐진다. 전통체합 및 음식교실은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비는 20달러.  
▲문의: (631)707-4832, 499-1260

## 지휘자와 반주자 청빙

버지니아 주에 있는 페니솔라 한인침례교회(www.pkbc.org)가 예배를 신실하게 섬길 지휘자와 반주자를 찾고 있다.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했거나 각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된다. 지휘자는 한어부 성가대 지휘, 오케스트라 담당, 뮤직아카데미, 칸타타 및 음악행사를 주관하게 되며 반주자는 영어부 예배 반주, 성가대, 수요일저녁예배에서 반주하게 된다.  
▲문의: (757)599-1974 이메일 sun1517@hotmail.com

## 선교·장학기금 모금 바자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오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2012 추계 선교·장학기금 모금 바자회를 갖는다. 이 바자회는 선교위원회와 장학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문의: (718)539-3021



퀸즈장로교회 바자회 지하 친교실에서 열렸다.

## 퀸즈장로교회 추계 선교바자회 성황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연례 추계 선교바자회가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열려 총8만900달러의 수익금을 올렸다. 이 수익금은 퀸즈장로교회의 선교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바자회에는 이번에도 산채비빔밥, 녹두빈대떡, 김밥, 우동, 만두, 족발, 떡, 도넛 등 교인들이 손수 만든 식사류와 야채과일류, 김치류, 식품, 의류, 생활용품, 선물용품, 주얼리, 잡화, 운동화, 화장품 등 각종 물품들이 판매됐다. 퀸즈장로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최대의 명령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로 부응하기 위해" 매년 봄 가을로 선교바자회를 열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원정 기자)



미기총 필라지역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한인교회 "자녀위한 기도시간 갖자"

### 미기총 14회기 첫 모임 기도회 및 좌담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황의춘 목사) 14회기 첫 모임이 지난 4일 필라델피아장로교회(담임 이용길 목사)에서 열렸다. 필라 지역의 목사 및 장로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정소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기 등에 빠져 공부도 신앙도 등한시하는 현실에 자녀들을 위해 각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 헌금시간과 매일 낮 12시에 2분씩 합심기도 할 것"을 제안했다. 동부이단대책위원장 이대우 목사는 부모들이 컴퓨터를 배워 자녀들을 통제하자고 제의했다. 이용길(미기총 동부 공동회장) 목사는 주일에 배 대표기도 때와 매일 밤 9시에 모는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필라 지역 모든 교회는 물론, 미주 전역 한인교회들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것을 권유하기로 결의했다. 이 기도회와 좌담회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게 된다. 뉴욕에서는 24일(수) 오전 10시 플라시 금강산 식당에서 개최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목회자리더십 및 비전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 "바른 교회론, 바른 목회적 리더십"

### 2012 목회자리더십 및 비전컨퍼런스 성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가 주최한 '2012 목회자리더십 및 비전컨퍼런스'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열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가 지난 35년간 이룩한 교회 성장과 목회자 리더십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7회째 맞는 이 목회자 컨퍼런스는 미주와 해외에서 35명이 참석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참석하는 중복 참가자가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은 '매년 한 가지씩 구체적인 적용 프로그램을 찾아 갈 계획'이라는 참가자격을 밝혀 동 컨퍼런스의 목회적 적용이 신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컨퍼런스는 정인수 목사의 주제 강의와 함께 동 교회 부목사들이 예배, 선교, 교육, 가정공동체, 팀사역, 생수의 강, 어머니 기도모임 등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 강의로 구성됐다. 정인수 목사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목양적 리더십을 위해 '목회자와 교회론', '목회자의 비전과 변화의 리더십', '목회자의 위기관리 리더십' 그리고 '목회자와 성령목회'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며 강의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주제 구성에 대해 정 목사는 "지난 18년 연합교회 사역에서의 임상적 목회경험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테마들이라 하겠다. 목회자는 올바른 교회론으로 무장되고 바른 목회적 리더십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갖는 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의 흐름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위기를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라는 소견도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컨퍼런스를 마친 후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목회에 대한 실질적 영감과 적용법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추석맞이 효도잔치에서 유스그룹이 바디워십을 하고 있다.

## 뉴욕병원선교회 '제13회 추석맞이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제13회 추석맞이 효도잔치'가 지난 6일 롱아일랜드 한국 요양원에서 개최됐다. 회장 김영환 목사는 "올해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어려운 중에도 뉴욕 일원 교회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도움을 주신 교회들과 섬겨주신 손길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효도잔치에는 역대 효도잔치 중 가장 많은 2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 선교회가 마련한 송편, 잡채, 과일 등의 오찬을 나누며 잔치를 즐겼다. 이날 잔치에는 한인 뿐만 아니라 타민족들도 참석해 한국 전통무용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특별선서에는 지인식 목사 특별 가곡, 프리미엄교회 국악팀 특별공연, 에벤에셀선교회 바디워십팀 찬양을 비롯해 성악가 김영환 집사 특별찬양, 태권도 시범경기 등의 다양한 무대가 선보였다. 이날 잔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김영환 목사 인도로 설교 신석환 목사(부활의 새빛교회), 축사 황경일 목사, 환영사 김지나 집사, 축도 이종명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병원선교회는 한국요양원을 포함, 너싱홈과 병원에서 환자들과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고 위로행사 등을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b>뉴욕셋째마녀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소년부: 오후 8:30 성가대: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2282, (718)999-2283, Fax: (718)999-2284 42-75 Passaic Blvd, Flushing, NY 11355 www.setjema.org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718)999-9199, Fax: (718)999-9199 40-02 64th Ave, Queens, NY 11104 www.mokyang.org	<b>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718)999-1977, Fax: (718)999-1977 2 Beason Rd, Astoria, NY 11603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718)999-2919, Fax: (718)999-3411 40-9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7985, Fax: (718)999-7777 40-9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annidok.org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계원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8: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2752, Fax: (718)999-0823 282-19 Queens Blvd, Queens, NY 11358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718)999-3021, Fax: (718)999-4979 40-02 Queens Blvd, Queens, NY 11358 www.churchofgod.org
<b>뉴욕효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7: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4758, 4825, Fax: (718)999-3111 42-17 150th St, Flushing, NY 11355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718)999-9199, Fax: (718)999-9199 40-02 64th Ave, Queens, NY 11104 www.stony.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1071, Fax: (718)999-3021 37-07 134 St, Flushing, NY 1135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3191, Fax: (718)999-4384 360 Edison Ave, Westbury, NY 11591	<b>메디니교회</b>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3890, Fax: (718)999-3890 401 4th Ave, Sunnyside, NY 11358 401 4th Ave, Sunnyside, NY 11358	<b>어린이교회</b>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4328, Fax: (718)999-9432 69-18 47th Ave, Woodside, NY 11377	<b>유니온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박계원 1부 기도회: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후 2: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0444, Fax: (718)999-0424 468 St. Gray Ave, Roseton, NY 11705 www.unionlutheran.org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 오전 6:3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문의: (718)999-6984, Fax: (718)999-6984 70 Phoenicia Rd, Mahwah, NJ 11355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718)999-9199, Fax: (718)999-9199 442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0040, Fax: (718)999-7789 142-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queens.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1100, Fax: (718)999-1100 89-00 22nd Ave, Bayside, NY 11360 www.queens.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재익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8: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718)999-1603, Fax: (718)999-0990 70 School St, Sunnyside, NY 11358 www.hanmaum.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985-0009 C.A.: Tel: (323)985-0009 N.Y.: Tel: (718)999-6400 Fax: (718)999-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985-0009 C.A.: Tel: (323)985-0009 N.Y.: Tel: (718)999-6400 Fax: (718)999-0074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b>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202)77-1488, Fax: (202)77-8242 Rue Josephine Plaz, 281 Cambridge, Paris Cap 91028-210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202)77-1488, Fax: (202)77-8242 Rue Josephine Plaz, 281 Cambridge, Paris Cap 91028-2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202)77-1488, Fax: (202)77-8242 Rue Josephine Plaz, 281 Cambridge, Paris Cap 91028-210	<b>브라질 새사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주일성가대: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551)999-9774, Fax: (551)999-9774 Rua Santa Rita, 285-PAUL-PAUL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임교회</b>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주일성가대: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문의: (54)114-531-1758 AV. CALABRICO 1353, CAP.FED., E.E., A.R., ARGENTINA	<b>질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 문의: (562)558-7628, Fax: (562)558-8389 Seaside Curve - 3 Canal, SCS Chbr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병관 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성가대: 오전 10:30 주일성가대: 오후 8:00 주일성가대: 오후 8:00 (1, 2, 3, 부스대)

# 남가주교협, 대규모 건강박람회 연다

## LA총영사관 세인트빈센트병원 합동 무료검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가 LA총영사관과 연계 유망 병원과 함께 한인들을 위한 대규모 무료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

교협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세인트빈센트 병원(원장 케이시 픽스 Seton Hall Garden & Patio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영사관 주

차장 및 민원실에서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건강인식 및 예방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여는 이번 건강박람회는 10여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1000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비롯 혈당검사, 갑상선, 전립선, 간 신장 등 초음파 검사, 콜레스테롤 검진, 체지방 검사 등도 진행된다.



남가주교협, LA총영사관과 세인트빈센트병원 합동으로 여는 무료 건강 박람회에 대한 기자회견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예성 미주총회 증경총회장 고 성성용 목사의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예배가 한국장외사서와 로즈힐 메모리얼 팍에서 열렸다.

## 전 예성미주총회장 고 성성용 목사 장례식

고 성성용 목사(미주생명교회 담임) 장례식이 4일 오후 1시30분 뉴욕에 위치한 한국장외사서에서 열렸다. 최한오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천국환송예배는 장인관 목사의 기도, 은종관 목사의 성경봉독, 예성미주 증경총회장 김재용 목사가 '고향나라에 먼저 가시네요'(고후 5: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윤수 목사가 약력소개, 박재호 목사(성결대학교 미주총동문회장, 브라질 세소망교회 담임)의 조사를 김창호 목사가 대독했으며, 조현영 목사(큰빛가리교회)와 고 성성용 목사의 아들 데이빗성 형제가 조사를 하고, 강윤택 목사가 조기를 불렀다.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김재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로즈힐 묘지에서 열린 하관예배는 박용덕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고 성성용 목사는 1982년 성결대학교와 성결교보수신학원 졸업했으며 석바위성결교회(인천소재)를 개척, 사역해오다 84년 도미해 지금 까지 승리한교회, 미주예성교회, 미주생명교회 개척해 사역해왔다. 또한 2004년에는 예성 미주지역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예성총회에서 한국총회 공로패 및 미주지역총회 공로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성은진 사모, 아들 성데이빗이 있다.

(박준호 기자)



## 남가주 연목회 친선골프대회

남가주 연목회(회장 정요한 목사)가 지난 1일 친선골프대회를 갖고 교제와 친목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미주베델교회(정요한 목사), 미주양곡교회(지용덕 목사), 사우스베이션교회(조종근 목사), 벨엘장로교회(변영의 목사), 삼성장로교회(신원규 목사), 성서장로교회(김병용 목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골프대회를 마치고, <기사제공: 남가주연목회>



위임예식 후 담사를 전하고 있는 광덕근목사.

##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해 동역하겠다”

### 은혜와평강교회 광덕근 담임목사 위임예배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광덕근목사 위임예배가 7일 오후 5시 위임국장 박기태 목사(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의 인도로 진행됐다.

김영일 목사 기도(벨리중앙장로교회)와 본 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단애 오른 김상덕 목사(전 총회장/복음장로교회 담임)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딤후1:12-1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며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충성이었다. 하나님께 충성해 성도들에게 분이 되어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임국장은 위임목사와 교우들의 서약을 받고 광덕근 목사가 은혜와평강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했다.

(이성자 기자)

## 주사랑선교교회 찬양선교음악회

### 찬송가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 돕기 위해

주사랑선교교회(담임 이재근 목사)는 찬송가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를 7일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이재근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특히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찬양선교음악회를 통해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날 음악회는 캘리포니아마스터코랄(음악감독: 김원재),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소노르스싱어즈, 이화보컬양상블, 에람피야노트리오, 바리톤 장상근 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또한 이날 출연한 모든 팀들이 연합합창으로 'I love you Lord'를 불렀으며 청중들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른 후 헨리 령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서부교계 게시판



##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지휘세미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는 교회지휘자와 뮤직디렉터를 위한 지휘세미나를 2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본교 음대 지휘과 교수인 Dr. Donovan Gray, Dr. John Sutton, Dr. David Hughes와 함께 하는 과정으로, 코랄과 오케스트라 지휘법, 발성법, 연주 관습법, 음악 해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음악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루어진다.

▲문의: (480)316-0012/김연주 박사, 이메일: ykim116@asu.edu

##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는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를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윤호균 목사(세계선교협회 총재/화강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4일(수) 저녁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25일(목)과 26일(금) 새벽 5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26일(금)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27일(토) 저녁 7시30분 열반인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

▲문의: (323)404-3147/박세현 목사, (213)255-1725/양경선 목사

## 기독교미술협회 전시회

2012기독교미술협회 전시회가 18일(목)부터 27일(토)까지 캘러리 웨스턴 LA(210 N. Western Ave #201, LA, CA)에서 개최한다.

▲문의: (818)421-3536

## 제5회 환태평양영화제

PPFF(디렉터 이승중 목사)는 제6회 PPFF 환태평양 영화제를 18일(목)부터 21일(주일)까지 웨스트필드 산타아니타 AMC 극장(400 S. Baldwin Ave. Arcadia CA 91007)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30분까지, 주일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또한 토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환태평양 영화상 시상식을 갖는다.

▲ 문의: (626)445-6255, (888)564-6890, submit@panpacificfilm.com

## 김기홍 장로초청 미주추계 간증성회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가 오는 18일(목)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남가주지역은 18일부터 21일까지 시온연합감리교회(구진모 목사), 25일부터 28일까지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갈릴리은교회(구본철 목사),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에나하임장로교회(신윤석 목사),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호산나교회(리세영 목사) 등이다.

▲문의: (551)655-4224



주사랑선교교회에서 열린 찬송가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위한 찬양선교음악회에서 연합성가대가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JoyLA.com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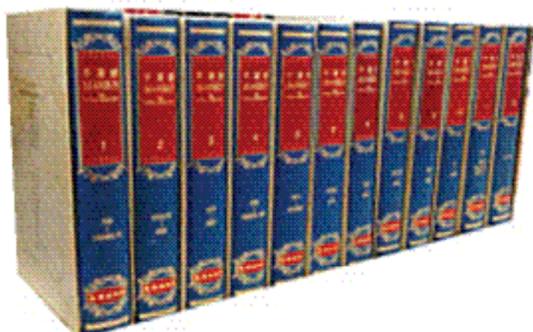
#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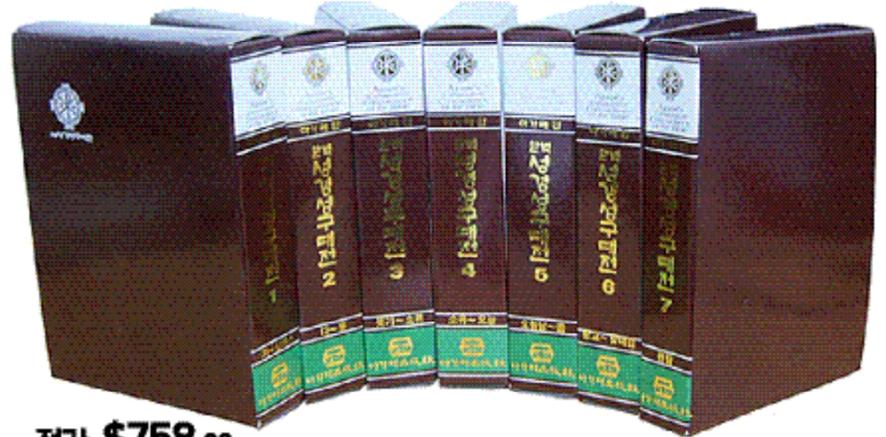
+Tax



이끼 원백

#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정가 \$758.00

save 69%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해스  
2권:다~롯  
3권:롯가~소매  
4권:소매~모압  
5권:모압~동  
6권:동~벧대  
7권:벧대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 교단총회참관 결과 발표

[미션라이프] 지난달 치러진 주요 교단 총회의 민주적·효율적 회의의 진행은 여전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 기독교민단체로 이뤄진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총회공대

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12 교단총회 참관결과'를 발표했다. 총회공대위는 조만간 참관 결과를 해당교단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회공대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예정통합·합동·고신·기장 등 4개 장로교단의 총회 개최 장소에 총 35명의 참관단을 파견

했다. 총회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총회에서 교단별 남녀 총대들의 성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정통합 및 고신에서는 여성 총대가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예

미에 빚뉘었다. 임원선거가 치러진 총회 첫날의 경우 89~99%의 참석률을 보이다가 총회 마지막 날에는 50%까지 떨어지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예정통합 등 일부 교단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내년부터 총회 일정을 하루 단축해 나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적도 쏟아

### 1년 앞둔 WCC부산총회 첫 찬반토론 불발

#### 찬성 측 이형기 장신대 명예교수 불참

1년 앞으로 다가온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를 앞두고 예정된 첫 찬반 토론이 무산됐다. 부산 지역에 기반을 둔 기독교사상연구원(원장 최덕성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은 8일 오후 2시 서울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WCC 찬반 토론을 열 계획이었다. WCC 찬성 측에는 이형기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가, 반대 측에는 최덕성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나서

서 제출한 발제문에서 "WCC는 타종교들과의 대화에서 복음과 성경, 삼일일체론, 교회의 본질,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 등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결코 양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WCC가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만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WCC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문화와 종교, 인종,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수는 이날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 발제문도 이미 제출했지만, 저희 교단(예정통합) 내부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수송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불참 이유는 언급을 피했다.

찬반 토론은 무산됐지만 토론회 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지하 공간에서 이어졌다. 신원균 개혁신학포럼 학술위원이 'WCC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주제로 한 이 교수의 발제문을 대독했고, 최 교수는 '신학총동-기독교와 WCC'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WCC와 관련된 신학적 핵심 쟁점은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가"여부다. 이를 두고 WCC 찬반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교수는 앞

서 "제외동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운 이들에게 감사하며 보은의 마음과 함께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50) 목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용인 죽전동 새에덴교회 본당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기념예배 및 축하 음악회'에서 미주한인재단(KAFUSA)이 수여한 '201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은 이날 "소 목사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한·미 우호 증진에 앞장선 공로가 크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201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자 중 민간인 목회자로서는 소 목사가 첫 번째 수상이다. 소 목사는 10년 가까이 미주한인의 날(1월 15일)과 세계한인의날

찬반 토론은 무산됐지만 교계에서는 WCC를 주제로 한 토론과 대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이종운 목사)에서 한국기독교학술원 주최로 'WEA(세계복음주의연맹)·WCC간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의 신학 연구 모임인 영남목회연구원과 예정통합 교단을 중심으로 한 'WCC 대책위원회' 등도 WCC 찬반 토론회 등을 구상 중이다.

###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소강석 목사

10월 5일) 제정을 위한 임명 및 서명운동 전개와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사업 및 권익 신장에 힘을 기울여 왔다. 2007년부터는 민간 종교단체 최초로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해 올해까지 6회째 진행했다. 소 목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을 더 사랑하고 그분들의 화합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저와 새에덴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민간외교 및 봉사활동을 펼쳐온 소 목사는 지난 2007년에도 미국 마틴루터링 재단이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VFW)가 수여하는 '금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교익은 "WCC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문화와 종교, 인종,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수는 이날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 발제문도 이미 제출했지만, 저희 교단(예정통합) 내부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수송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불참 이유는 언급을 피했다. 찬반 토론은 무산됐지만 토론회 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지하 공간에서 이어졌다. 신원균 개혁신학포럼 학술위원이 'WCC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주제로 한 이 교수의 발제문을 대독했고, 최 교수는 '신학총동-기독교와 WCC'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WCC와 관련된 신학적 핵심 쟁점은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가"여부다. 이를 두고 WCC 찬반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교수는 앞

### 2012할렐루야컵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성료

세계스포츠선교회(대표회장 정재규 목사)가 주최한 2012 할렐루야컵 국제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최근 크로아티아 칼로바츠 시립 실내체육관에서 15개국 임원과 심판 180여명, 846명의 선수단, 3000여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크로아티

아의 수도 자그레브 팀이, 준우승은 칼로바츠 팀이, 3위는 루마니아 팀이 각각 차지했다. 주최 측은 "2014년 할렐루야컵 세계 태권도 선교대회는 9월 말 크로아티아 칼로바츠에서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세계 70여개국에서 2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 “2012 교단총회, 민주·효율적 회의진행 여전히 미흡”

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12 교단총회 참관결과'를 발표했다. 총회공대위는 조만간 참관 결과를 해당교단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회공대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예정통합·합동·고신·기장 등 4개 장로교단의 총회 개최 장소에 총 35명의 참관단을 파견

했다. 총회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총회에서 교단별 남녀 총대들의 성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정통합 및 고신에서는 여성 총대가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예미에 빚뉘었다. 임원선거가 치러진 총회 첫날의 경우 89~99%의 참석률을 보이다가 총회 마지막 날에는 50%까지 떨어지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예정통합 등 일부 교단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내년부터 총회 일정을 하루 단축해 나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적도 쏟아

### 기감 '영적 지도자' 새로 세웠다

#### 8개 연회, 2년 임기 감독선거 실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4일 제30회 총회 감독선거를 열고 서울연회 등 전국 8개 연회에서 새 감독을 뽑았다. 각 연회의 영적 지도자로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은 임기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회 정회원으로 11년 이상 활동한 교역자와 지역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만 감독 선거권을 갖는다. 서울연회 감독선거에서 424표를 얻은 김영현 은평교회 목사가 146표에 그친 김중순 화양교회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영현 목사는 "교회의 미래는 성령밖에 없다"며 "뜨겁게 기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목사는 "감리회가 겪어온 고통의 줄을 끊고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정연회는 봉명중 서산중앙교회 박용순 담임목사, 총부연회는 안병수 은혜교회 목사가 김은성 송학교회 목사를, 남부연회에선 한양수 광명교회 목사가 이찬복 새하늘교회 목사를 각각 제치고 당선됐다. 또 중앙연회에선 이정원 성남제일교회 목사가, 삼남연회는 석준복 우리교회 목사가 각각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당초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동부연회 감독선거도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체담'이 "비상식적인 유권 해석에 기초한 잘못된 선거"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0일 받아들여

### 학생 10명중 1명만 "불만"

#### 종자연 주공격대상 미션스쿨 채플 설문조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 불교 단체가 기독교계 학교의 채플(예배)을 학생들의 종교자유 선택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달리 채플 참가 학생들의 60%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채플을 통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끼는 등 채플의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채플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콘텐츠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기독교 교육단체인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서울 대광고가 학생 372명(비기독교인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8%가 '현재의 채플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18.5%, '만족한다' 41.3%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54%보다 높은 것이다. 반면 '채플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3.3%, '만족하지 않는다' 10.1%여서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플 프로그램 중 설교에 만족한다는 42.5%였으며 찬양에 만족한다는 54.1%였다. 특히 외부 강사가 초청된 채플에 대한 만족도는 59.2% 상대적으로 높고 외

부인사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채플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62.8%), '진로나 꿈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46.4%) '삶의 목적을 좀 더 확실히 갖게 된다'(41%)로 나타나 채플이 학생들의 성품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광고 우수호 목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독교학교에서의 채플이 신앙적으로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학생들과도 참여와 소통을 통한 채플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미션스쿨의 종교 교육을 둘러싸고 종자연 등 불교단체를 비롯한 외부 기관 등에서 부당한 지적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미션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학생들이 가운데 비기독교인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미션스쿨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 잇따라 자 지난 해 상반기 기독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학교 지원 프로젝트'에 착수, 서울의 대광고와 경신고를 대상으로 지난 1년여간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신고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션스쿨 교사들의 교직 및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제작했다. 교재에는 미션스쿨 교사로서의 소명과 정체성, 학생 신앙지도, 신앙공동체 세우기 등이 20개 부문에 포함돼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에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도 영웅의 마음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서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9161 Email, leg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기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물리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www.dynamicsworld.com

ADIDAS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지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영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박람회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a1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 선교칼럼

나순규 선교사

## 북한을 향한 마음

그동안 변함없이 PSM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동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후 60년을 떨어져 살아온 북한.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한 민족의 뿌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의 현 체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체제는 주체사상입니다. 그 주체사상은 북조선의 역사를 통해 북조선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탱하게 했습니다. 인민들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체사상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미국에 예측되어 있는 우리 남조선 동포들이 주체사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부터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서로 다른 곳에 가치관을 두고 6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주체사상 위에 있는 북조선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빈곤 현실에 대해 특정한 부류에게 책임도 묻지 말고, 지난 역사를 탓하지도 말고 분단 이전의 선조들의 일이 서린 같은 단일민족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분단국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지난 2008년부터 하나님께서 PSM을 통해 아시아의 마을을 입양하라고 명하실 때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몰랐습니다. 그 땅을 밟는 순간, 아 여기도 조선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쓰는 말을 쓰고, 내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여기는 분명 한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돕는다면 그 어떤 허영심도 자존심도 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전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서 해외동포로 살면

서 그 자격으로 북조선에 방문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는 알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마을입양을 위해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제 마음을 누르던 것은 바로 북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라신의 고아원과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외국인 전용 호텔 앞 가게 멀리서 저희 일행을 몰끄러미 바라보던 한 소년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저같은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PSM의 마지막 종착지인 북한 마을 입양 사역. 이것의 의미는 마을마을 마다 해외 동포들의 진짜 사랑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동포교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하여 각 교회가 9개 도 안에 있는 리 단위의 한 마을씩 입양하여 최소 10년, 통일된 후 적어도 5년까지 그 마을을 돌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적어도 국수공장, 빵 공장, 공우유 공장 등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그 마을 아이들과 노인들을 먹이는 일로 그 입양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로 가슴 뛰는 일이지만 큰 산들을 먼저 넘어야 하겠지요.

얼마 전에 저는 최근에 개봉한 남북한 탁구단일팀에 얽힌 실화 영화 '코리아'를 보았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념과 삶의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10월 17일에 이곳을 떠나 서울을 거쳐 10월 22일에 심양에 도착해서 북한 영사관의 대표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입양사역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의논하려 합니다. 어떤 여정이 될지는 장담 못하나 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마을 입양... 이것은 이제 해외 동포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과 힘을 합하여 맡아야 한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을 띠고... 이 일정을 위해 꼭 기도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한 교회 전체가 선교사가 되어 그 마을로 달려가야 합니다!" ("Not a Sponsor but a missionary!")



# 이슬람 세계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네트워크 대표)

이번 주간 타임스는 지난날 무슬림 세계를 휩쓴 무슬림의 분노에 대해 "살라피스의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적인 글을 내놓았다. 중동은 좀 잔잔한 것 같지만 이슬람 테러가 북아프리카에서 심각하게 확산돼 미국은 북아프리카의 알카에다와 전쟁을 해야 할 판이다. 특히 말리와 소말리아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주(9월 30일)에는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가를 테러를 당해 수명의 신자들이 죽었다.

세계는 갈수록 종교대결이 커져가고 있다. 예멘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무슬림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들이 미얀마 국경 근처의 불교마을을 공격, 절과 불상을 파괴해 주민들이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바티칸 소식

지금 바티칸에서는 바티칸(Vatileak, 정보유출)로 시끄럽다. 직원이 교황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지난 주 이태리 공영 방송은 노골적으로 바티칸의 돈 부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바티칸은 은행에 50억 달러를 예치했는데 EU의 은행법을 전혀 무시한다고. 2년 전에는 돈 관리책임자가 런던에서 암살당했다고 보도했다.

### 혼란한 중동: "봄의 사막바람"

시리아 내전은 터키-시리아 충돌로 번지고 있다. 시리아가 국경의 한 마을을 포격해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하자 터키도 시리아에 반격을 가하고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보에 의하면 터키군인들이 이미 시리아에서 반군을 돕기 때문에 시리아가 터키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일 이란 테헤란에서는 대통령 아흐네마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달려가 폭락하고 물가가 올라 못살겠다고 데모했고, 경찰은 최루탄 가스로 해산시켰지만 규모가 아주 커 보인다. 작년에도 아랍의 봄을 "봄의 사막바람"에 비유했다. 사막바람은 아주 무섭다.

### 아흐네마드의 궤변(?)

지난 2일 저녁(캅파디아시간) CNN의 파이드 자카리아는 마침 유엔을 방문한 아흐네마드와 인

터뷰를 했다. 자카리아는 아주 예리하게 직설적으로 그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이스라엘 지도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고, 심지어 "홀로코스트는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코란을 들이대었다. 코란에 알라는 "가나안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 분명 말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아흐네마드의 답변을 요약하면 "그것은 여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못 된다. 유대인들은 여러 인종 중에 하나로 거주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미국: 반이슬람 영화제작자 체포

지난 주 미국은 반이슬람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 제작자 이집트계 미국인 목사를 체포했다. 이것은 다시금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주 러시아 정부도 반이슬람 영화 제작자나 만화를 금지했다.

### 파키스탄: 반이슬람 영화제작자 살인 선동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파키스탄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반이슬람 영화를 제작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20만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하자, 철도청장도 십만달러를 걸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은 무슬림이 첫째이고 정부공무원은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리고 알카에다 요원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다른 무슬림 지도자는 노골적으로 알카에다는 이슬람의 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선동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 예멘: 기독교 신자들 십자가 처형당함

예멘에서는 이슬람 지하디스트 안사르 알 샤리아가 기독교 신자가로 처형하고, 다른 두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톨릭뉴스가 9월24일자로 보도했다.

이 그룹은 예멘에 강력한 조직을 가진 단체로 예멘 정부에 이슬람법을 실천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단체다. 살해이유는 이들이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 아랍어로 기록된 것은 코란을 인용한 것이다. 코란 5:33,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

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외에 또 다른 글자가 위에 있는데, 내용은 이들은 사리아의 법에 따라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은 최근 이라크에서 공포감을 주기위해 기독교 신자 어린이들을 나무에 달아 죽인 일이 있다고 한다(미국의 한 이슬람전문가는 테러도 이슬람 선교 전략 중의 하나라고 말할 적 있다).



라오스: 기독교 목사를 구속

라오스 종교자유를 위한 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 for Lao Religious Freedom)에 의하면 라오스에서 3명의 목사가 구속돼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으며,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한달 교회운영비는 얼마인지를 추궁 당했다. 라오스는 불교국가이면서 공산국가로, 내국인 라오스 사람들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다. 라오스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다. 라오스나 베트남, 미얀마의 기독교 신자들은 소수부족이거나 산지족들이다.



사우디정부: 남자 없이 성지순례 온 나이지리아 여성 무슬림들 강제귀국 조치

지난달 사우디정부는 남자들을

대동하지 않고 성지순례 온 나이지리아 여성무슬림들을 강제 귀국시키자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공황대합실에서도 푸대접을 받았다고. 사우디에서는 여자가 외국 여행할 때는 남자를 대동하거나 남편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떠오르는 살라피스트

지난 주 타임지는 살라피스트들이 9월 아랍폭동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살라피스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한다.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떠오르는 살라피스트: 정치적 이슬람의 변두리 세력이 새로운 자유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혹은 아랍의 봄의 약속을 파괴할 것인가?"

얼마전 이슬람 세계 뉴스에서 '살라피스트'가 독일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타임지 기사를 발췌

요약하면, 사상 살라피스트(Salaf)는 영어로 말하면 '이전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이슬람의 첫 시작자들의 교리와 사상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살라피즘'이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정치적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며 생활방법이다. 이들은 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 학자들의 가르치는 지침을 따른다. 이들은 현 무슬림들이 현대주의나 서구사상에 오염돼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선지자 무하마드의 엄격한 경건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상에 의하면 삶이란 아주 진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 영화, TV, 오락은 타부시 된다. 여자들은 집에 있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머리에서 발까지 덮어야 한다. 다른 무슬림 종파들은 모두 이단으로, 타종교 못지않게 경멸의 대상이다. 그러나 개종자는 환영한다. 많은 살라피스트들에게 서구와 미국은 용서할 수 없는 적이다. 이들은 유투브나 무하마드를 모욕하는 만화는 무슬림 신앙을 파괴하고 신이 아랍인들에게 준 자원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면으로 계속)

**입(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및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깊이와 개성을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가격 1만 원  
504면 / 18,000원 (1~13권)  
653면 / 25,000원 (14~23권)  
신구판 1만 원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때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의 세사의 식을 따져 볼 때 비록 문헌도 다르지만 저자께서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해 줄 것 같다면 금강줄기였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무다론의 배경 209면 / 8,000원

유대인회상주의 276면 / 10,000원

**장재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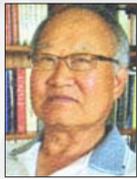
- 부산신대목회원
- 에베살림대학성경지도역사학박사
- 현성지대학Ph.D 과정
- 현세이원교회집회목사
- 현한국어사서예연구소연구위원
- 현미스라엘입어카데미대표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서울국제도서전  
6. 20. - 24.  
COEX A/B홀  
www.sibf.or.kr

• 한글언어연구소 총장, 출판기획사 • 홈페이지 www.urban.co.kr • 주소 서울영등포구로동 164-3 • 전화 02247-1004 • 출판사 출판사

기독문학소설

여리고로 가는 길 (16)



정중해 박사 (문학인)

“손 선생님,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들을 만난 그 피해자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반쯤 죽은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는 강도들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인간 세상에 빚어지고 있는 사태를 한번 보세요.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모두가 다 어떤 원인들이 빚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테러사건도 다 어떤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요, 그 원인들이 조래한 모든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요. 현재라는 이 지점은 과거의 종착점인 동시에 또한 미래로 출발하는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부모님의 결과인 동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가져 올 원인이 된다고도 봐야죠. 저는 우리 교회 문제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박차고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진태는 현재 안 목사가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안 목사님, 현수와 같은 철부지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 문제아들이 여러 종류인가 보죠?” “그러므로.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이민 온 이 미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 교회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주로 한국인, 멕시코, 백인, 흑인 아이들이데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진태로서는 아가 안 목사가 자기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고아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동서양이 함께 빚어 놓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안 목사가 현재 여러 종족을 다루는 다문화교회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그는 이런 교회에서 동서양을 두루 포용하는 문화자로서는 최적격자처럼 보였다.

안 목사는 진태에게 자기 교회 청소년들의 문제를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물론 여기 미국아이들 중에 문제아들이 더 많지만,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마약을 하던 아이들이 있고요. 가계 물건을 훔친 샤피프터, 학교를 지뢰했던 드림아웃,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현수와 같이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도 상처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아들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억울하게 강도들에게 얻어맞은 피해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요, 강도들이 텃버드는 여리고의 길과 같다고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피해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시길래 현수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마음이 병든 아이들요, 병원에서처럼 저들끼리만 수용하지 말고, 정신이 건전하고 착한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성공경부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크리스천의 사랑과 헬로십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죠. 제가 성공경부를 늘 인도합니다만,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저도 언제나 그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목사님.”

“육체적 상처에는 약물을 써야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그러나 외상이 아닌, 정신적인 상처나 병은 정신적으로 싸매어 주고 아무 만져 주어야지,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현수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그런 이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수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저의 잘못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으니, 그게 고민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대가를 왜 자신이 치러야 하는지? 목사님, 혹시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람이 받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다 전생이나 현재의 업보입니다. 금생이 전생의 업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한문으로 자업자득이란 말과 같이...”

“불교에서 업보란 말은 범어(Sanskrit)로 갈마(Karma)라고 하죠. 그 말은 인간 행위의 인과관계를 뜻하는데,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대로 자식이 거두는 것도 응보이고,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두는, 즉 자업자득도 다 응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진태는 부모의 잘못으로 현수에게 준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까 염려가 되었다.

“그럼 그런 인과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봅니까?”

“불교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바뀌처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이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고 나와야만 해탈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할니까?”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기독실업인을찾아서

이광종 장로 (Leader's LA총괄컨설턴트)

개발도상국 대학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

온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이광종 장로

“만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생들을 모두 전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들은 에콰도르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종 목사를 비롯해 권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와 남동생이 장로가 됐어요. 참 감사하지요.”

믿음의 선두주자가 돼 동생들을 하나씩 인도한 이광종 장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정글 앞에 선교센터를 세워 원주민 교회를 돕고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동생 이수종 목사를 통해 그는 선교지의 상황을 종종 듣고 있다. 그곳은 아직도 많은 원주민교회가 교역자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사역자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그곳을 위해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선교지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난 7월 에콰도르를 다녀오기도 했다.

해외한식당 컨설팅 시작

이광종 장로가 금번에 LA에서 새로 시작한 일은 바로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금 한국 정부는 해외한식당 컨설팅을 조직해 한식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한식당을 선정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지난 상반기에 이미

‘런던 한식당 방문 컨설팅’을 성공리에 마친 리더스(Leader's) 경영 컨설팅 사가 LA지역을 방문하고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 일이 이광종 장로는 ‘LA 총괄 컨설턴트’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이 장로는 LA 지역 한식당(가운, 북창동 순두부, 여수, 팔색 삼겹살 Sizzling Gogi 등)을 엄선해 이 식당이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특성에 맞는지 확인 작업을 완료, 점검하고 실행의 과정을 거쳐 매장과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상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런던 한식당 방문 컨설팅’을 성공리에 마친 리더스(Leader's) 경영 컨설팅 사가 LA지역을 방문하고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 일이 이광종 장로는 ‘LA 총괄 컨설턴트’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이 장로는 LA 지역 한식당(가운, 북창동 순두부, 여수, 팔색 삼겹살 Sizzling Gogi 등)을 엄선해 이 식당이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특성에 맞는지 확인 작업을 완료, 점검하고 실행의 과정을 거쳐 매장과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상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CEO 될 수 있는 노하우

이 일을 설명하는 이광종 장로는 “LA 지역에 500여개의 한식당이 있습니다. 메뉴는 거의가 대동소이하며 한인 타운에 집중돼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요. 이 경쟁을 마케팅 차별화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뚝 서도록 경험을 나눠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마케팅 차별화는 메뉴, 레시피, 점포레이아웃, 점포디자인, 광고디자인, 로고 등 여러 가지로 예로 들었다.

이번에 LA를 방문해서 차별화를 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지점장이나 오너를 만나게 돼 기쁘다는 그는 “좀 더 많은 점포(식당)들이 우리 관련의 점포주로서 마케팅관련 노하우를 조금만 신경 쓰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토어의 CEO가 될 수 있다”고 귀뜸하며 마케팅 차별화를 연구 발전시킬 것을 권했다.

또한 그는 “LA에 머무는 동안 상담을 원하는 크리스천 오너들에게는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고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미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긴 이광종 장로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에콰도르 동생선교사 선교지역 적극 협력 마케팅 차별화로 세계적 프랜차이즈CEO 길 안내

이광종 장로는 1959년 미국 해방대학교와 해군교관학교를 나왔지만 미국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어려운 조국의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그가 한 일은 바로 유통업체 근대화 한 몫을 이룬 것. 그 한 예로 한국마켓에서 미국 소고기를 최초로 수입 판매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소비자들과 산지를 직접 연결하기도 했다. 재래시장만 있던 시절에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로 300개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공적인 CEO로서의 삶을 살아 온 그의 실버선교사역의 비전은 이

할 일이 너무 많아 한 시간도 허비할 수가 없다.

한국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객원교수로 있으며 GRCC(Global Retail Culture Center)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토어오퍼레이션’, ‘글로벌 소매업체 전략’ 등을 비롯해 23권의 경제학 전문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www.kgrcc.com을 방문하면 볼 수 있고 grccworld@gmail.com이나 (213)925-4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3면에서 계속) 이슬람 세계 뉴스 살라피스트들의 급성장 원인

과거에는 아랍 세계에서는 살라피스트들은 코미디의 대상이 될 정도로 조롱을 당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선전물을 모스크에서는 돌리지 못하고 모스크 밖에서 돌릴 정도로 이단시 됐다. 그러나 이들 세력이 갑자기 부상한 것은 아프간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고 아프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다.

탈레반 정권은 살라피스트 이념을 그대로 실행한 셈이다. 특히 이번 이집트 선거에서 이들은 무슬림형제단 다음가는 정당이 됐다. 그러나 리비아나 튀니지, 예멘에서는 의석을 많이 차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새 정부를 흔들 것으로 전망한다. 튀니지의 새 대통령 몬세프 마르조키는 “우리는 진정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살라피즘은 양과 같다. 우리가 기다릴수록 그들은 치료하기 아주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관련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화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013년 달력 E7 미가엘 반주기 미중동부 지사 학득 특별세일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0)



##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예배의 주된 기독교 교육 방법들 중 설교(Preaching)에 대해, 특히 “설교자의 역할(Educational Roles of Preachers)”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교육적 방법들 중 두 번째로 “기도(prayer)”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 방법의 하나로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은 “대표기도”로도 종종 표현되는 “예배 중 회중기도(Congregational Prayer in Worship)”입니다. 이는 한 명의 대표자가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신앙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간구할 일들에 관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설교자일 수도 있고, 선별된 공동체의 중직자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특별히 고안된 예배에서 청년부 혹은 청소년부 중 한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기도자는 전체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한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공동체적 기쁨과 또는 아픔을 표현하며, 공동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회중적 관심사들, 염려들,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간구가 필요한 개별적 사연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와 아픔들에 대해서, 회중을 대표하여 약속의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해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예배 중 회중 기도를 통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인

도를 하게 된 예배자들이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 총성해야 할 교육적 사명입니다. 즉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자가 아닌 예배자들이 예배의 대표기도를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 회중기도 즉 대표기도를 맡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예배자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그 타당한 기도의 언어들을 익혀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실제로 예배 중에 대표기도를 하며 회중을 이끌 때 리더십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예배자들에게 대표기도 등의 예배 중 회중기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영성과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좋은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예배자들이 대표기도를 경험함으로써 이에 참여할 때, 그리고 본인들이 대표기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방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예배 중 회중기도가 갖는 교육적 역할에 대해 확실한 인지를 가지고 대표기도를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다른 예배자들의 대표기도를 준비시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 회중기도는 영성과 신앙 성장케 하는 좋은 교육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표현 창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데, 이는 대표자가 드리는 대표기도를 경험하며 참여할 때, 예배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배우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배 중 회중 기도는 예배자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방법을 깨닫게 하며, 이때 사용된 어휘들을—건전한 신학이 내포된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관계들에 대한 타당하고 적절한 표현들—을 익히고 연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통해 예배자들 자신들만의 영혼의 언어들, 즉 본인들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표현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예배 중 회중기도를 경험함으로써 그 기도에 참여할 때,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타당하고 입증된 언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 머리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기도를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들의 대표 기도자 물론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또한 예배자들이 함께 들으며 참여하고 이를 통해 많은 교육적 성과들이 발생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도 또한 예배자들에게 대한 진정한 섬김의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기

교육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배음악이 갖는 교육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배안의 기도를 통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인들만의 귀한 특성중 하나인,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인교회들의 전통인, “기도회” 중심의 예배들과 “통성기도”에 대한 논의를 간과할 수 없기에 잠시 고민했습니다만, 이는 다음번에 이야기 할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 “전통을 전수하는 기독교 교육(Tradition-Transmitting Christian Education)” 편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는 쪽이 더욱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새벽기도회나, 금요철야기도회 등의 기도회 중심의 집회를 혹은 주일예배안의 통성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들은 신앙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며, 함께 기도에 임하는 주변의 신앙선배들과 동료들로부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한 적절한 태도들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 스스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깊은 의미 있는 해후를 하고 영성을 키워가며, 이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길과 힘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만일' 은 없습니다 (막9:14-29)

22, 23절은 주님께 대한 아이 아버지의 간구와 그 간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주님께 “만일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소시오”라는 식으로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구에 대해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의 언약, 권세, 진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이요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 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그 약속이 현실화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화 어린아이의 친구 (막9:30-37)

37절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이런 자들을 섬기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지역인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를 몹시 경시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다. 주님은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했던 제자들의 영예를 책망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세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고 아첨해 친해

지기를 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영원한 영예와 부를 얻으려면 어린아이가 미미한 사람들의 친구가 돼줘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을 골라 사귀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주려고 사람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아버지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십시오.

## 수 성도를 타락시키는 죄 (막9:38-50)

42절은 누구든지 주님 믿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밧들을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를 만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우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섭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교훈했습니다(엡1:3-12).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타락시키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르치는 사탄의 죄입니다. 성도를 실족시켜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 목 성경을 악용하는 죄 (막10:1-12)

4절은 이혼과 관련하여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답변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을 자유롭게 허락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신24:1에 보면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일을 말합니다. 그

리나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되는 일들도 다 이혼사유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사단적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위선자가 자기 종교를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악용하여 악한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핑계대로 자기의 이익이나 정욕을 채우려는 이윤 배반적인 죄를 경계합니다.

## 금 낙타의 속성 (막10:13-25)

24, 25절은 부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낙타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낙타는 자기에게 필요한 식량을 미리 자기 몸에 비축해 놓는 동물입니다. 낙타가 물도 풀도 없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미리 많이 먹어두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낙타 등의 혹은 바로 그 비축한 영양분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타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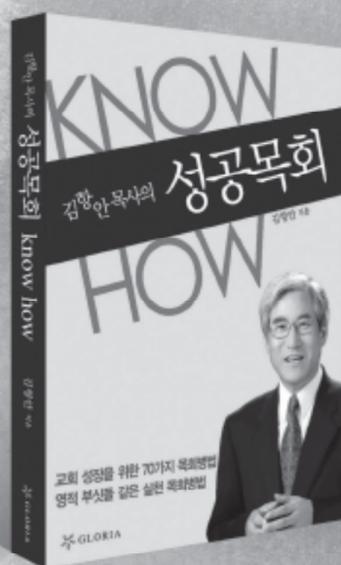
물만 보면 무조건 먹습니다. 우리는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것과 같이 재물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자기만 독식하고 독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잠1:19).

## 토 핍박의 축복 (막10:26-31)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도 핍박도 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핍박은 비단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괴롭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핍박 배후에 신앙을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에게 오는 핍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지만 하면 축복이나 은혜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

가 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주면 그 자녀는 부모가 주는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사행심과 의타심만 지니는 나약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진정한 축복이나 은혜 되게 하기위해 시련도 겸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닦쳐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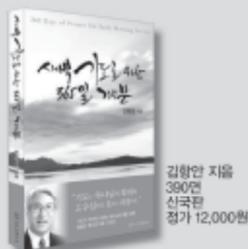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화’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박사, 신학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종교학 석사학위, 미국 브리검스 대학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서울신학대 대학원 석사, 아펜젤러 신학대학원 석사,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장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의성경’, ‘목회자의 영적능력회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혜와 교회성장’, ‘대표기도드’,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담음’, ‘180-002 복음적인 예배의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70가지의 저서가 있다.

# 남가주 영적 대각성 성 집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의 영적 대각성과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는 말씀의 종 윤호균 목사님을 모시고, 각 지역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준비하여 남가주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



## 집회일정

10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	온누리교회 (담임 : 유진소 목사)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el. (818) 834-7000 / www.anconnuri.com	
10월 25일(목) 26일(금) 새벽 5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 913-4499 / www.lafgc.com	
10월 26일(금) 저녁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 (담임 :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6200 / www.gracemi.com	
10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 한중수 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 윤호균 목사 프로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총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적각성위원장 역임
- 경기도경찰청교경협의회 총재 역임
- 세계선교협회 총재
- CTS 기독교 TV 특강 및 설교전임강사
- CBS 기독교방송 특강 및 설교전임강사
- 2008년 대한민국 방송설교대상 수상
- 2011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수상
- 2011년 대한민국 참목자 대상 수상
- 화광교회 담임

문의 총 무 : 박세헌 목사 (323)404-3147  
사무국장 : 양경선 목사 (213)255-1725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213) 735-3111 www.theckc.org